

한국문학탐방 II

발표 자료집

2013

경상도 북부지역 (4월 3일 - 4월 6일)

한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한국문학탐방 II

발표 자료집

2013

경상도 북부지역 (4월 3일 - 4월 6일)

한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목 차

1. 탐방단 구성 --- 3P
2. 버스 좌석표 --- 4P
3. 방 배정표 --- 5P
4. 답사 일정표 --- 11P
5. 답사 보고서 ---12P
6. 지도 ---13P
7. <1조> 하회별신굿놀이 --- 16P
8. <2조> 이육사 --- 21P
9. <3조> 퇴계이황 --- 26P
10. <4조> 이현보 ---31P
11. <5조> 조지훈 ---36P
12. <6조> 김시습 --- 41P
13. <7조> 김동리 --- 45P
14. <8조> 박목월 --- 50P
15. <9조> 현진건 --- 55P
16. <10조> 월명사 --- 60P
17. <11조> 성덕대왕신종 --- 65P
18. <12조> 연오랑 세오녀 --- 70P
19. 참가자 연락처 --- 74P

소감문 작성 우수자

평가 및 심사: 신서인, 박슬기, 김명준

<1일차> 우수조: 3조

김동민, 허송이, 이나래, 이민정(28번), 이수진, 배은주

<2일차> 우수조: 10조

지윤정, 최진실, 김소정, 김시은, 이지연, 박혁

<3일차> 우수조: 4조

남윤주, 변지선, 홍빈나, 홍종현, 이병호, 나동환

메 모 장

한국문학탐방단 구성

전체진행 : 학생회장(이재혁), 발표사회 : 답사부장(길창인), 숙식관리 : 부학생회장(이다영)

재정 및 진행기록 담당: 한소영 조교

조	탐방대상	조장	1학년	재학생
1	하회별신굿놀이	정희일	김가은, 김경훈, 양인영, 지윤정	(노용우), (김민주)
2	이육사	박 빛	김보미, 김동민, 육소연, 최진실	남윤주, (윤희정)
3	이항	최순택	김소정, 김민섭, 윤혜진, 허송이	(권순영)
4	이현보	노한나	김시은, 김수동, 이나래, 호예원	변지선
5	조지훈	조영재	김연수, 김재우, 이민정(작), 홍빈나	김기훈
6	김시습	김민우	김은지, 박상우, 이민정(큰), 홍종현	(윤지은)
7	김동리	길혜민	박정현, 김한별, 이수진	김유미, (박영훈)
8	박목월	최성은	박 현, 문소윤, 이지연	박은지, 김윤경
9	현진건	박선우	윤영식, 박정빈, 이지원	이병호, (홍정인)
10	월명사	나동환	이종희, 박지은, 임승연	홍에스더, (최선희)
11	성덕대왕신종	임명철	최양선, 배은주, 정지은	이한울, (백인혜)
12	연오랑 세오녀	맹승범	허선호, 배은희, 정희선	박 혁, (이진희)

<인솔관리: 이재혁, 이다영, 길창인 편집: 김나라 > * ():단순 참가

<배차>총 83 명

1호차: 1조, 3조, 9조, 10조, 11조, 12조, 김명준, 박슬기, 한소영, 윤 숙, 이재혁

2호차: 2조, 4조, 5조, 6조, 7조, 8조, 오춘택, 신서인, 유명희, 길창인, 이다영

<준비물>

공동 준비물: 캠코더, 카메라, 넷북, 지도, 비상약 등

개인 준비물: 의복, 운동화, 자료집, 필기도구, 학생증, 카메라, 우산, 상비약, 세면도구 등

<주의사항>

유적 관람 시간: 발표와 자유관람을 반씩

유적 관람할 때: 개인행동도 조별로 실시할 것

버스 좌석표 1호차

기사님		계단		
김명준 교수님		이재혁		
박슬기 교수님		조교 한소영 윤 속		
정희일	김경훈	나동환 이종희		
김가은	양인영	박지은 임승연		
지윤정	윤혜진	최선틸 흥에스더		
김소정	허송이	임명철 이한울		
최순택	박선우	배은주 정지은		
김민섭	윤영식	최양선 허선희		
박정빈	이지원	백민혜 이진희		
맹승범	박혁	배은희 정희선		
김민주	홍정인	권순영	이병호	노용우

버스 좌석표 2호차

기사님		계단		
박영훈 길창인		이다영 윤희정		
오춘택교수님		유명희교수님		
신서인교수님		김연수 홍빈나		
김보미 남윤주		큰이민정 작은이민정		
육소연 최진실		조영재 김민우		
노한나 박 빛		박상우 홍종현		
김수동 김동민		김은지 김한별		
김시은 변지선		문소윤 이수진		
호예원 이나래		박은지 이지연		
김재우 최성은		박 현 박정현		
윤지은	김유미	김기훈	길혜민	김윤경

한국문학탐방 방 배정표

1일차 국학문화회관

32평형

1조

재학생		신입생	
학번	이름	학번	이름
07	조영재	13	김경훈
08	이재혁	13	김수동
09	박빛	13	박상우
12	박혁	13	박현
12	박선우	13	최양선
12	노용우		
12	이병호		

2조

재학생		신입생	
07	최선희	13	김동민
08	임명철	13	김재우
08	이한울	13	이종희
09	최순택	13	박정현
11	길창인		
12	정회일		
12	김민주		

3조

재학생		신입생	
07	박영훈	13	김민섭
08	최성은	13	홍종현
09	나동환	13	허선희
09	김민우	13	윤영식
11	맹승범		
12	권순영		
12	김기훈		

4조

재학생		13	육소연
09	홍에스더	13	최진실
09	노한나	13	김소정
신입생		13	허송이
13	김가은		
13	양인영		
13	지윤정		
13	김보미		

24평형

1조			
09	이진희	13	이나래
09	백민혜	13	정지은
13	윤혜진		
13	김시은		

4조			
12	김유미	13	문소윤
12	김윤경	13	이수진
13	김한별		

2조			
12	윤희정	13	작은민정
12	홍정인	13	배은희
13	호예원		
13	김연수		

5조			
12	남윤주	13	박정빈
12	이다영	13	이지원
13	이지연		

3조			
12	윤지은	13	큰민정
12	길혜민	13	정희선
13	홍빈나		
13	김은지		

6조			
12	변지선	13	임승연
12	박은지	13	배은주
13	박지은		

2일차 경주 조선 온천 호텔

대형

1조

재학생		신입생	
학번	이름	학번	이름
07	조영재	13	김경훈
09	박빛	13	김수동
12	박선우	13	박상우
12	노용우	13	박현
12	이병호	13	최양선

2조

재학생		신입생	
학번	이름	학번	이름
07	최선희	12	김민주
08	임명철	13	김동민
09	최순택	13	김재우
11	길창인	13	이종희
12	정회일	13	박정현

3조

재학생		신입생	
학번	이름	학번	이름
07	박영훈	12	김기훈
08	최성은	13	김민섭
09	나동환	13	홍종현
09	김민우	13	허선희
11	맹승범	13	윤영식

중형

1조			
12	남윤주	13	김가은
12	윤지은	13	문소윤
13	윤혜진		

2조			
12	윤희정	13	이지연
13	양인영	13	이수진
13	김시은		

3조			
12	이다영	13	박정빈
13	지윤정	13	허송이
13	이나래		

4조			
12	홍정인	13	이지원
13	김보미	13	호예원

5조			
09	홍에스더	13	김연수
09	이진희	13	박지은

6조			
09	노한나	13	작은민정
09	백민혜	13	임승연

7조			
12	길혜민	13	육소연
13	홍빈나	13	배은주

8조			
12	김유미	13	김은지
12	김윤경	13	정지은

9조			
12	변지선	13	큰민정
13	최진실	13	배은희

10조			
12	박은지	13	김한별
13	김소정	13	정희선

11조			
08	이재혁	08	이한울
12	박혁	12	권순영

3일차 한나 모델

대형

1조

재학생		신입생	
학번	이름	학번	이름
07	조영재	13	김경훈
08	이재혁	13	김수동
09	박빛	13	박상우
12	박혁	13	박현
12	박선우	13	최양선
12	노용우		
12	이병호		

2조

재학생		신입생	
07	최선희	13	김동민
08	임명철	13	김재우
08	이한울	13	이종희
09	최순택	13	박정현
11	길창인		
12	정회일		
12	김민주		

3조

재학생		신입생	
07	박영훈	13	김민섭
08	최성은	13	홍종현
09	나동환	13	허선희
09	김민우	13	윤영식
11	맹승범		
12	권순영		
12	김기훈		

중형

1조			
12	남윤주	13	이지연
13	작은민정	13	정지은

2조			
12	박은지	13	이나래
13	지윤정	13	이지원
13	최진실		

5조			
12	윤희정	13	임승연
13	큰민정	13	호예원

6조			
12	홍정인	13	이수진
13	김연수	13	육소연

7조			
12	김윤경	13	양인영
12	길혜민	13	문소윤

3조			
12	이다영	13	김은지
13	김소정	13	박정빈
13	홍빈나		

4조			
12	변지선	13	배은희
13	윤희진	13	김보미
13	배은주		

8조			
12	윤지은	13	박지은
12	김유미	13	김시은

9조			
09	노한나	13	김가은
09	이진희	13	정희선

10조			
09	홍에스더	13	허송이
09	백민혜	13	김한별

<답사 일정표>

	1 04.03.(수)	2일차 04.04.(목)	3일차 04.05.(금)	4일차 04.06.(토)
08시	07 40 학교 집합 (연암관) 00 출발	00 조식	00 조식	00 조식
09시	30 치악휴게소 (20분) 50 출발	00 이동(30분) 30 농암 종택 (30분) <u> : 이현보</u> 50 이동(50분)	00 이동(40분) 40 석굴암(30분)	
10시		40 주실마을(1시간) <u>발표: 조지훈</u>	20 이동(20분) 40 불국사(50분) <u>발표: 현진건</u>	00 이동(2시간20분)
11시	00 안동하회마을 (1시간20분) <u>발표: 하회별신굿놀</u> <u>이</u>	40 이동(10분) 50 중식(40분)	30 이동(10분) 도보 40 동리목월문학관 (40분) <u>발표: 김동리, 박목월</u>	
12시	30 중식(1시간)	30 이동(2시간30분)	20 이동(10분) 30 중식(40분)	00 중식(동명휴게소) (1시간)
13시	30 이동(20분) 50 병산서원 (30분)		10 이동(20분) 30 사천왕사지, 선덕여왕릉(40분) <u>발표: 월명사</u>	00 이동(3시간30분)
14시	20 이동 (1시간30분)		10 이동(20분) 30 경주국립박물관 (1시간30분) <u>발표: 성덕대왕신종</u>	
15시	40 이육사문학관 (50분) <u>발표: 이육사</u>	00 용장사지(3시간) <u>발표: 김시습</u>		※ 단양휴게소
16시	30 이동(20분) 50 도산서원(1시간) <u>발표: 이항</u>	※서남산주차장→용 장유료주차장(버스이 동)	00 이동(1시간)	※ 홍천강휴게소 40 학교 도착
17시	50 이동(10분)		00 호미곶(1시간) <u>발표: 연오랑세오녀</u>	00 뒗폴이(성심식당)
18시	00 숙소 도착 석식(1시간)	00 용장주차장 10 이동(10분) 20 석식(40분)	00 숙소 도착 30 석식, 평가회 (1시간30분)	
19시	30 소감문 작성/조별	00 숙소도착 소감문 작성 조별(1시간)		
20시	30 토의	00 소감문 작성/조 별	00 소감문 작성/조별	
21시	00 개인 정비 취침	30 토의	30 토의	

		22 정비 취침	22시개인 정비 취침	
	중식: 안동전통음식전문점 (안동찜닭) 석식: 국학문화회관 (자율배식)	조식: 국학문화회관 (자율배식) 중식: 하얀비가든 (산채비빔밥) 석식: 한식뷔페 (자율배식)	조식: 조선온천호텔 (자율배식) 중식: 유수정 한정식 (한정식) 석식: 한나모텔(매운 탕)	조식: 한나모텔(황태해장국) 중식: 동명휴게소(육계장)
	국학문화회관	경주조선온천호텔	한나모텔	

<답사 보고서>(일일 제출용)

※ 답사 참가자는 답사지마다 1매씩 작성하여 조장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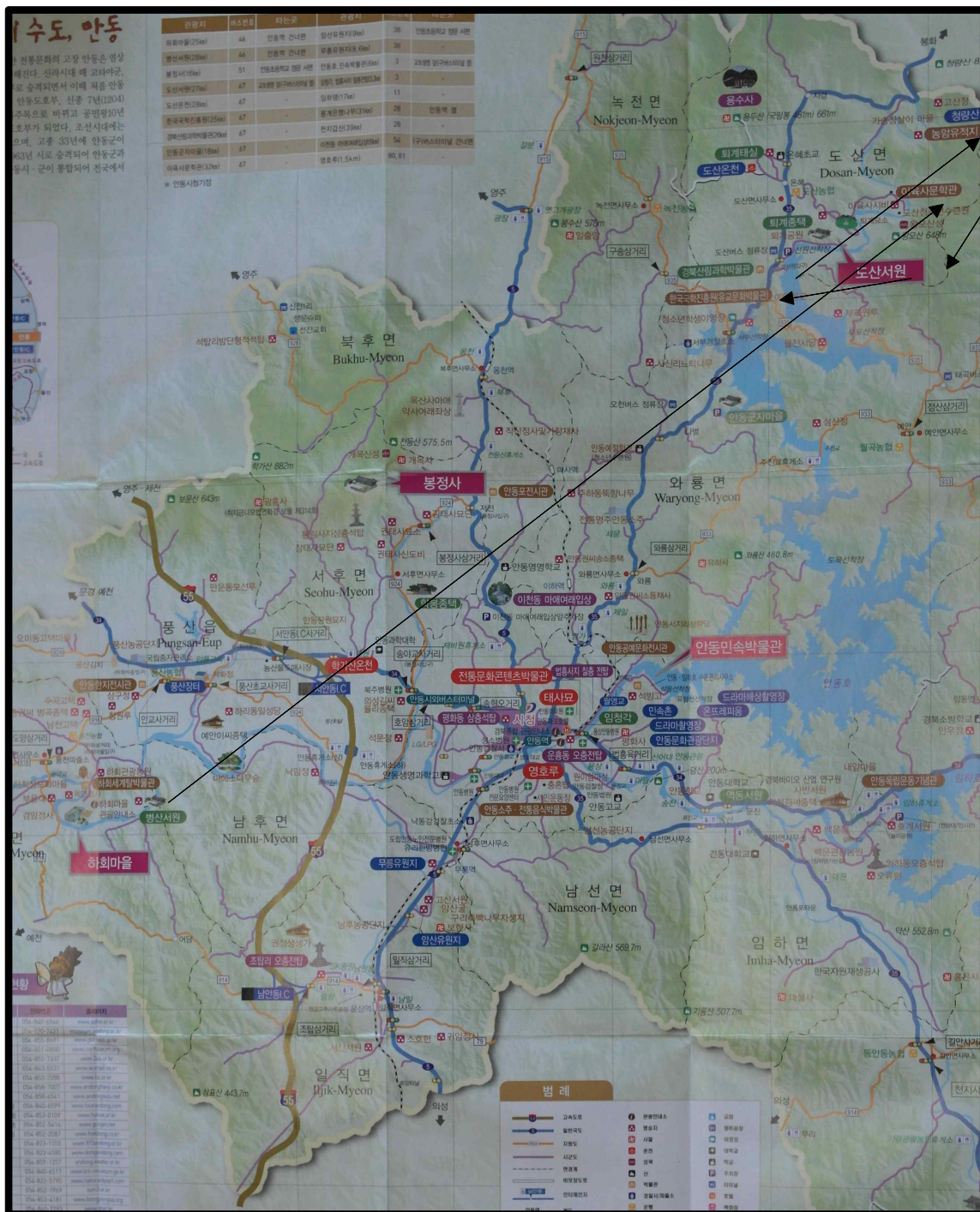
※ 조장은 조원의 답사지를 모아 매일 21시까지 답사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조		학번		이름	
답사지:					
경로(구체적 장소)	시간(10분단위)	관찰 내용		특기 사항	
【감상】 (문학 창작 기반과 관련하여)					
【발표 내용, 답사 일정 등에 관한 의견】					

경상북도 지도



안동 지도



경주 지도



포항 지도



1조 - 하회별신굿놀이

1. 하회별신굿탈놀이에 사용 된 탈

20121121 양인영



하회별신굿탈놀이를 포함한 대부분의 탈놀이는 서민들이 행하던 놀이다. 당시 사회는 지배층을 직접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배층을 형상화하는 양반탈을 쓰고 간접적으로 조롱, 풍자함으로써 대리 만족을 느꼈다고 할 수 있다.

각시탈은 하회별신굿탈놀이의 첫 번째 마당인 무동 마당에서 볼 수 있다. 이 장면에서 각시는 팽과리를 든 채, 무동을 타고 구경꾼들 사이로 우뚝 솟아 있다. 이 각시탈은 서낭신을 대신한다고 믿어, 당시 하회리에서도 별신굿 이외엔 볼 수 없었다. 부득이하게 꺼내어 볼 시, 꼭 고사를 지내야 했다고 한다.

중탈은 중간에 등장한다. 별신굿에 등장하는 중은 절에서 수도하는 중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중 또는 파계승을 뜻한다. 굿에서 중은 오줌 누는 부네에게 성욕을 느낀다. 또 총각을 살해하고, 각시를 납치하는 모습들을 보인다. 이러한 행동들이 중으로서의 떳떳하지 못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보여준다.

할미탈은 가난에 찌들어 산 노파역이다. 별신굿 중에 ‘베틀가’라는 타령을 하는데 할미의 신세가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시집살이의 고충과 구경꾼들에게 구걸을 하는 장면에선, 당시 여성들의 고생스러운 삶을 나타낸다. 굿 중에서, 할미의 남편이 어제 사다준 청어 한 마리를 어쩔느냐며 묻자 ‘당신 한 마리 주고 아홉 마리 다 먹지 않았냐.’라며 화내는 재밌는 장면이 나온다. 이는 당시 지극히 가부장적 권위가 강한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부네탈은 일명 ‘과부탈’로도 불리며, 기생 또는 첩도 의미할 수 있다. 별신굿에서 자신에게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 지체와 학식을 내세우자, 그들에게 애교도 부리고, 머리에 이도 잡아주며 그들을 유혹한다. 또한, 중을 타락시켜 결국 속세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탈 역시 유혹적으로 만들어졌다.

초랭이탈은 가장 별신굿의 가장 독특하고 독보적인 탈이다. 굿에서 초랭이는 양반의 종이다. 하지만 실상은 양반을 골려 먹고, 행동이 영악하고 경망스럽다. 초랭이가 양반을 조롱하는 행동들은 구경꾼들로 하여금 웃음을 유발하고, 굿의 재미를 한층 더해준다. 그러면서 무능하고, 책임감 없는 양반들의 모습을 부각하게 시킨다. 그들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보여준다.

참고문헌: 한국박물관 연구회, 「한국의 박물관1」, 문예마당, 2000, p.7 ~ 해학과 익살의 탈

2. 하회별신굿탈놀이의 내용

20131101 김가은

하회별신굿탈놀이는 하회리에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전승적인 탈놀이이며 서민극이다. 모두 12마당으로 이루어지지만 무동마당, 백정마당, 할미마당, 파계승마당, 양반과 선비마당, 그리고 신방마당 이렇게 핵심적인 6가지 마당으로 간추릴 수 있다.

첫 번째는 무동마당이다. 마을의 수호신인 서낭신을 맞이하기 위해 각시가 무동꾼의 어깨 위에 올라가 덩실덩실 몸을 움직이며 풍악을 이끈다. 이것은 일종의 마을의 평안과 풍년 농사를 기원하기 위한 사위이다.

세 번째로 백정마당이 벌어진다. 이 백정마당에는 백정과 소 한 마리가 나온다. 백정이 도끼와 칼을 들고 한참 춤을 추다가 마을 사람들이 잡아놓은 소를 때려잡아 그것의 우랑을 자른다. 여기서 우랑은 쇠불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우랑을 가지고 구경꾼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흥정을 벌이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연출한다. 금기시하는 성의 영역을 태연하게 보여줌으로써 겉으로는 배제하는 척하지만 은밀하게 저속한 성을 즐기는 지배층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비판한다.

네 번째는 할미마당이다. 배가 드러나는 짧은 저고리에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쪽박을 든 할미광대가 나와 살림살이를 시작한다. 할미는 베를 위에 앉아 베를 짜는 시늉을 하면서 자신의 고달프고 궁핍한 인생을 한탄하며 ‘베틀가’를 부른다. 할미의 신세타령은 당시 여성들의 지위와 실상을 풍자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파계승마당이 있는데, 빨간 연지 곤지에 단아한 자태를 뽐내며 부네(妓女 혹은 小室)가 나온다. 부네는 과부로 양반과 선비들을 유혹하는 역할이다. 치마를 살짝 들쳐 소변을 보는데 이때 길을 지나가던 중이 그 광경을 훔쳐본다. 결국, 흥분을 한 중은 부네에게 한달음에 달려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돌리는 부네를 업고 나간다. 절제와 금욕을 중시하는 중이 자신의 신분을 어기고 욕정에 탐을 내는 타락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여섯 번째가 바로 양반과 선비마당이다. 이 마당에는 양반과 선비 두 인물이 나오는데 양반은 자신의 종인 초랭이와 그리고 선비는 자신의 종인 이매하고 부인인 부네와 등장한다. 처음 양반과 선비가 대면할 때에 하인 초랭이가 둘 사이를 오가며 인사말을 전해 준다. 그 후 양반과 선비는 부네를 사이에 두고 서로 싸움을 하게 된다. 초랭이는 중간마다 선비와 양반의 앞에 서서 양반을 풍자하며 골리는 행동을 한다. 해학적인 행동과 대사를 통해 양반과 선비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웃음을 자아냄으로써 일반 서민들의 억눌린 감정을 통쾌하게 풀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여덟 번째가 신방마당이다. 신방마당은 혼례식을 마친 멍석 위에서 이루어진다. 신랑과 신부의 첫날밤을 모의하는 것으로 신랑이 신부의 저고리 웃고름을 풀고 신부를 안아 눕힌다. 혼례마당과 신방마당은 처녀의 몸으로 죽은 처녀신인 서낭신을 위로하는 마당이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풍요로운 생산을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하회리의 별신굿탈놀이는 막을 내린다.

참고문헌: 서연호, 「서낭굿탈놀이」, 열화당, 1991, p.39 ~ 69

하회탈 전문 제작실 하회동탈방 <http://www.hahoemask.co.kr>

3. 하회 별신굿 탈놀이 유래 및 연원

20131102 김경훈

-하회별신굿탈놀이의 유래

하회 별신굿 탈놀이의 유래는 무속신앙인 동제(평상제·제사)로부터 비롯된다. 별신굿이란 일정 기간마다 마을의 수호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무병 풍년을 기원하는 곳으로,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豊川面) 하회리(河回里)에서는 이러한 행사를 약 500년 전부터, 1928년에 중단될 때까지 정월 초하루에 마을의 수호신인 무진생(戊辰生) 성황님에게 동제를 올려 왔으며, 그와 동시에 성황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 탈놀이를 같이 했다고 알려졌는데, 그것이 하회 별신굿 탈놀이이다. 무진생 성황은 하회동의 여서낭신으로 17세 처녀, 의성 김씨 혹은 15세에 과부가 된 며느리신이라고 알려졌다.

동제는 보통 10년에 한 번 인원, 경비 등의 조건을 확인하고 신주가 신탁을 물어 대제를 올리며, 수시로 마을에 전염병이 돌거나, 흉년이 들어 마을에 액이 있다거나 따로 신탁이 있을 때에 임시제를 올리는 방법으로 계속됐으며, 그와 동시에 이 탈놀이도 전승되었다.

-하회 별신굿 탈놀이의 연원

하회탈의 연원은 허 도령전설과 함께 전해진다. 하회탈의 제작 시기는 고려 중엽인 12세기경으로 추정된다. 당시 하회마을엔 허씨들이 모여 살았다고 한다. 그때 마을에 재앙이 들었는데 허 도령이라는 사람의 꿈에 신이 나타나 “탈을 12개 만들어서 그것을 쓰고 굿을 하면 재앙이 물러갈 것이라.”고 계시를 하며, “탈이 다 만들어질 때까지 누구도 들여다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까지 일러주었다고 한다.

이에 허 도령은 이때부터 목욕재계하고 문밖에 금줄을 치고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오랜 시간 동안 탈 제작에 몰두하였다. 어느 날, 허 도령을 사모하던 처녀가 허 도령이 하도 그가 그리워 금줄을 넘어 탈을 만드는 방의 문에 구멍을 뚫고 들여다보았다. “누구도 들여다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신의 금기가 깨어지는 순간 허 도령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면서 죽었다. 마지막으로 만들던 이매탈은 턱을 완성하지 못한 채 허 도령이 죽었으므로 지금까지 턱이 없는 채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한다.

참고문헌: 서연호, 「서낭굿탈놀이」, 열화당, 1991, p19 ~24

디지털 안동문화대전 (<http://andong.grandculture.net/>)

4. 하회별신굿탈놀이의 의의

20121138 정회일

하회 별신굿 탈놀이는 탈놀이 중 가장 단순한 옛 모습 그대로 전승한 서민극으로, 그 춤사위가 특징하게 정해져 있기 보다는 즉흥적으로 춤을 추어서 진행하는 방식이 있기도 했고, 한국탈춤의 주류인 산대도감(삼국시대 지배층의 무용과 민중의 통속적인 무용이 중국의 놀이인 산악백희의 영향을 받아 혼합된 춤) 계통 극과는 다르게 무의식 극적 전승으로 이어졌으며 우리나라 서민극의 기원을 밝히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또한, 당대의 시대상과 종교관 또한 엿볼 수 있는데, 내용으로 미루어 볼 수 있듯 당시의 지배계층인 양반과 선비의 허위성과 무능, 파계승의 희화화를 통해 볼 수 있는 불교의 타락, 그에 따른 피지배층인 농민·서민의 삶의 애환을 풍자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당시의 시대상을 폭로하는 내용을 보여주었다. 또 신분질서가 엄격했던 당시의 사회상으로 볼 때, 지배계층의 비판으로 일관된 탈놀이가 하회라는 양반 마을에서 양반들의 묵인 하에 또는 경제적인 지원 속에서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관객으로 하여금 단순한 오락의 기능뿐이 아닌, 상민들의 억눌린 감정과 불만을 자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로써 조선 중~후기의 사회상을 연구하는 데 자료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놀이의 과정을 통하여 공동체 내부에 내재하여 있는 계급 간의 모순과 갈등의 문제점들이 완충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것이 새롭게 공동체의 기존체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해의 풍작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써 당시의 농사는 마을의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사업이었음을 알려준다. 또한, 농사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자연현상에 좌우되는 일임을 알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한 부분으로써 설날에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방법으로 써온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당시의 민속 종교의 모습과 성격, 그리고 그 유래가 농업에 있음을 짚어볼 수 있는 자료라 하겠다.



참고문헌: 박진태, 「하회별신굿탈놀이」, 피아, 2006, p.87 ~ 123

문화재청 (http://www.cha.go.kr/cha/idx/Index.do?mn=NS_01)

디지털 안동문화대전 (<http://andong.grandculture.net/>)

5. 하회별신굿탈놀이의 현재

20131137 지윤정

하회별신굿탈놀이의 공연 장소는 안동 하회마을 관리사무소 뒤 임시상설 공연장에 마련되어있다. 평균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10개월간 165~170회 가량의 공연을 한다. 공연은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한 시간 정도 진행된다. 공연 시작 10분 전 공연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안내를 한다. 그리고 한 시간 동안 하회별신굿탈놀이의 6개 마당을 차례로 공연한다. 또 공연이 막을 내리고 10분 정도는 관객들과 함께하는 뒤풀이 마당이 이어진다. 관람료는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 무료이다. 1997년부터 시작된 하회별신굿탈놀이의 상설공연은 2010년까지, 약 16년 동안 1,290회 공연이 열렸다. 180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된다.

하회별신굿탈놀이의 인간문화재도 지정되어있다. 자격의 단계는 전수생-이수자-전수조교-인간문화재순으로 이어진다. 전수생들은 하회 별신굿 탈놀이 보존회 준회원으로서 2년 동안 공연을 보며, 대사를 숙지하고 춤사위를 익히게 된다. 1년 후 평가를 받아 정회원으로 되면 악사 역할을 맡을 수 있고 5년 동안 ‘전수자’라는 칭호가 붙는다. 그 후 공연과 관련된 기여를 전수받아 적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이수자’의 호칭이 붙게 된다. 이수자 중에서 문화재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조교를 선발한다. 문화재위원회가 조교 중에서 다시 인간문화재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다. 하회별신굿탈놀이는 전통성이 강하고 그 계보가 뚜렷하다. 그 때문에 인간문화재의 물림 역시 굿의 생명에서 중요하다.

하회별신굿탈놀이의 첫 번째 인간문화재는 17세에 소년 각시역을 맡았던 이창희 옹으로 현재는 인간문화재 자리에서 물러나있다. 다음으로 이상호 씨는 백정역을 맡았었으며, 73년 가면극 연구회 창립회원이다. 전수경력이 30년이 넘는다. 김춘택 씨와 임형규 씨는 각각 배역이 할미역과 상쇠, 선비로 역이며 예능보유자로 인정받았다. 아직도 활발히 안동하회마을축제에서 하회별신굿탈놀이에 참여하고 있다. 두 사람의 이수자로 신준하 라는 젊은 기능인이 함께 활동하며 실력을 키우고 있다.



참고문헌: 서연호, 「서낭굿탈놀이」, 열화당, 1991, p34~38

안동관광정보센터 (www.tourandong.com)

2조 - 이육사

1. 생애

20121115 남윤주

이육사 선생의 본명은 이원록이다. 1904년 4월 4일, 음력 3월 21일에 경북 안동군 도산면 원천동 882번지에서 퇴계 이황의 13대손인 이가호와 허형의 딸 허길 사이에 다섯 형제 중 차남으로 출생하였다. 그의 40년이란 일생 동안 이원록, 이원삼, 이활, 이육사와 같이 많은 이름이 사용되었다. 그 중 원삼은 주로 가정에서만 불렀다고 한다. 이활은 평문 가운데서도 시사평론을 사용했던 이름이고, 수필이나 시에서는 대개 이육사를 사용했다. 이육사라는 이름은 대구 감옥에서 그에게 붙여졌던 수감번호에서 비롯된 것이다.

1916년 12세에 조부와 별세하면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이때 한문학을 수학했으며, 이 무렵 보문의숙에서 수학했다. 그리고 1919년 15세 때, 도산공립보통학교 1회 졸업을 하였다. 1920년 16세 때, 안동시 녹전면 신평리 등벌리로 이사하였고, 부모를 비롯한 가족 모두 대구 남산동으로 이사하였다. 석재 서병오에게서 그림을 배웠으며, 동생 원일은 글씨를 배워 일가를 이뤘다. 1921년 17세 때, 영천군 화북면 오동 안용락의 딸 일양과 결혼하였다. 처가에서 가까운 백학학원에서 수학하였고, 둘째 이름 원삼을 사용했다. 그 후 1923년 19세 때, 백학학원에서 9개월 동안 교편을 잡았다.

1925년 21세에 형 원기, 아우 원유와 함께 대구에서 의열단에 가입하였다. 1926년 때, 7월 베이징 쥔구어 대학 상과에 입학하여 7개월 재학하였다. 그다음 해 23세 때, 여름에 귀국하여 '장진홍 의거'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다. 그리고 1929년 5월에 증거불충분 석방되었다. 1930년 1월 3일에는 첫 시 <말>을 조선일보에 발표하였으며, 아들 동운이 태어났다. 10월에 『별건곤』에 이활과 대구 이육사라는 이름으로 <대구사회단체개관>을 발표하였다. 1931년 27세에는 1월에 '대구격문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3월에 석방되었다. 또 당시 잦은 만주 나들이가 있었다. 1932년 28세 때, 10월 20일에 난징 근교 탕산에서 문을 연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1기생 학원으로 입교하여 군사간부 교육을 받았다. 그 후 1933년 29세 때, 4월 20일에 1기생으로 졸업하였고, 4월에 국내에서 『대중』 창간임시호에 평문 <자연과학과 유물변증법>을 게재하였다. 그리고 5월에 상하이로 이동하였다가 7월에 서울로 잠입하였다.

1933년 30세 때, 3월 20일에 군사간부학교 출신이 드러나 구속되었다. 6월 '기소유예 의견'으로 석방되었고, 시사평론을 다시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1935년 31세 때, 정인보 맥에서 신석초 만나 친교를 갖고 다산 정약용 서세 99주기 기념 『다산문집』 간행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신조선사의 『신조선』 편집에 참여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시를 발표하였다. 1937년 33세에 서울 명륜동에서 거주하였으며 글의 성격이 시사평론에서 문학평론으로 바뀌었다. 1939년 35세 때, 종암동 이사와 <청포도>를 발표하였다. 그다음 해 1940년 46세 때에 시 <절정>, <광인의 태양> 등을 발표하였다. 1941년 37세 때, 2월에 딸 옥비가 태어났다. 그리고 폐 질환으로 성모병원 입원했었으며 부친상을 치렀다. 1943년 39세 때, 1월에 신정에 석초에게 베이징행을 밝혔다. 또, 한글 사용 규제를 받자 한시만 발표하였고 4월에 베이징으로 갔다. 충칭과 옌안행 및 국내에서는 무기 반입 계획을 세웠다. 7월 모친과 맏형 소상에 참여하려 귀국하였다가 늦가을에 붙잡혀 베이징으로 압송되었다. 1944년 40세 때, 1월 16일 새벽에 베이징 네이이구 동창후동 1호에서 순국했다.

참고문헌: 김희곤, 「이육사 평전」, 푸른역사, 2010

2.이육사의 유적지

20131123 육소연



<이육사 문학관의 절정시비와 동상>

경상북도 안동에는 이육사를 기념하는 이육사문학관이 있다. 이육사 문학관은 2004년 처음 문을 열게 되었고, 이육사의 독립정신과 업적을 나타낸 곳이다. 이육사의 고향 원천리에 2층 건물로 설치되어 있다. 문학관 앞에는 이육사 동상과 절정의 시비가 있다. 문학관에는 이육사의 육필원고, 시집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독립운동 자료와 영상체험도 할 수 있다.



<이육사 생가 모습>

경상북도 안동에는 이육사의 생가가 있다. 지금의 생가는 복원된 생가이고, 이육사의 본 생가는 1974년 안동댐 건설될 때 물속에 잠기는 것을 피해 안동 시내로 옮겨졌다. 2004년 이육사 문학관이 완공되면서 이육사의 생가도 복원되었다. 이육사의 생가는 "ㅡ" 자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안채와 사랑채의 칸 수가 같고 마루와 방과 부엌이 모두 대칭인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육사의 생가 앞, 1993년에 건립된 청포도 시비는 실제 청포도와 같은 모양과 함께 시를 전시하고 있다. 원래의 집터에는 울타리가 있었으나, 지금 복원된 집은 울타리가 없다.

<안동민속촌>

안동댐 입구에 있으며, 이곳에는 이육사의 <광야>의 시비가 전시되어 있다. 1968년에 세워진 이 시비는 원래 자리는 낙동강 변에 있었으나, 이 자리로 옮겨졌다. 높이가 1미터 가량 되는 받침돌 위에 검은 오석이 가로 놓여있다. 시비의 앞면에는 이육사의 대표작인 <광야>가 있고, 뒷면에는 이육사를 기리는 글이 새겨져 있다.

참고문헌 및 사진출처

김희곤, 「이육사평전」, 푸른역사, 2010.8.29., p18~21, p122~140, p220~245.

이육사문학관 홈페이지: www.264.or.kr

문학관 사진: www.encyber.com

생가 사진: <http://biog.naver.com/happyzippy>

3. 이육사의 대표작품

20131103 김동민

말

훗트러진 갈기
후주군한 눈
밤송이 가튼 털
오! 먼길에 지친 말
채죽에 지친 말이어!

수긋한 목통
축-쳐진 꼬리
서리에 번적이는 네굽
오! 구름을 헛치려는 말
새해에 소리칠 한말이어!

1927년, 대구에서 '장진홍 의거' 사건이 일어났지만, 일본은 범인은커녕 단서조차 잡지 못하였다. 그러자 이육사를 포함한 4형제를 잡아 범인으로 몰아넣었다. '말'이라는 이 시는 1929년 5월, 억울한 1년 7개월의 옥고를 치르고 나와 중외일보(中外日報) 대구지국의 기자로 활동하던 중, 1930년 1월 『조선일보』에 게재한 작품이다.

1연에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다 나온 이육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훗트러진 갈기', '후주군한 눈', 무엇보다도 '채죽에 지친 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비참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새해 1930년은 경오년(庚午年), 말(馬)의 해였던 것이다. 그래서 2연에서 볼 수 있듯이, '새해에 소리칠 한말이어!'라는 표현으로 움츠러들고 있던 자신을 정리하는 의지를 다짐한다. 이육사는 억울한 감옥살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독립활동을 재개할 준비를 하기 위해 정신적으로 무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청포도

靑葡萄 (청포도)
내 고장 칠월(七月)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 온다고 했으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 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함뼉 적셔도 좋으련

하늘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 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1939년, 이육사가 35세인 나이에 발표한 대표작이다. 육사는 이 <청포도>를 가장 아끼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한다. 1~2연에서는 '주저리 주저리', '알알이'라는 표현들을 통해 그리워하는 고향의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고달픈 몸으로 오는 '손님'을 맞아 포도를 먹이고 싶다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손님'은 육사가 기다리고 있는 신임하는 사람, 대상이거나 자신의 소망을 희망을 의인화 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은쟁반', '하이얀' 같은 깨끗한 단어들을 통해 희망 있는 미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내 고장'은 '조선'이고, '청포도'는 우리 민족이고, 청포도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 민족이 익어간다고 말했다. 이 말은 즉 이육사는 곧 일본의 패망과 조선의 독립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신념 때문이었다.

<청포도>를 발표할 당시, 대부분 문인들이 이육사를 포함해 말술을 즐기긴 하였지만, 그는 작품에 술을 관련시키지 않았다. 즉, 즐거우나 괴로우나 동요하지 않았던 그의 정신은 문학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의 과정에까지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김희곤, 「새로 쓰는 이육사 평전」, 지영사, 2002, P.91~180

4. 이육사 시의 문학사적 의의

20131105 김보미

이육사는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시인이다. 육사는 일제 식민지에 치열한 저항의 정신으로 맞서고 조국 해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시를 통하여 저항 시인으로서 우리 근대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전설처럼 남아있다.

이육사의 시는 시대상으로 볼 때 민족 저항사의 맥락에 닿아있다. 일제치하 우리 국민의 울분과 비애, 항거와 저항의 정신이 바탕이 된 그의 시 정신을 보면 그렇다. 육사는 가혹하고 절망적인 현실과 일제에 항거한 투쟁 정신을 시에 담았다. 게다가 육사는 개인의 체험과 고통을 민족적 보편 정서로 확대하기도 했다.

그의 시는 진정한 참여의 문학적 의미를 구체화해 보여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형태나 이미지의 구조에서도 균형미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균형과 형식미가 바탕이 되어 육사 시의 전통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육사는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작품을 남겼지만, 우리 근대시에서 독특한 경지를 개척하였다. 당시의 다른 어느 시인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시의 공간을 확대하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이것은 그가 광활한 중국을 자주 왕래하면서 친숙해진 공간개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육사는 의지적 남성주의와 강력하고 저항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육사 시의 시적 표현 기법의 발전과 세련됨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예를 들어, 그의 시 <바다의 마음>, <아편>에서는 시각적 이미지가 중심을 이룬다. 이미지즘 시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육사는 연마다 관념을 결합하여 단순한 이미지즘에 기울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이미지즘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자칫 정서가 과격해지기 쉬울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였다. 그것은 그의 시의 예술성과 함께 현대시의 기교적 발전과정의 단계를 높여주었다.

이육사에게 있어 저항시와 순수 서정시는 서로 포괄하는 개념이었다. 육사의 시는 시적 정서와 저항 의식을 따로따로 구사하면서 하나로 구현시켰다. 육사는 섬세한 정서로써 일본 제국주의에 훌륭히 맞섰다. 그리고 민족을 근원으로 하는 사상과 의지와 순수함을 한 곳에 담아 하나의 예술로서 완결시켰다. 이러한 기교와 방법을 구현한 점에서도 육사의 시에 우수성이 있다.

참고문헌

조창환, 「이육사-투사의 길과 초극의 인간상」, 건국대학교출판부, 1998.

이동영, 「이육사 전집/평전·연구자료」, 문학세계사, 1992.

김학동, 「이육사전집」, 새문사, 1986.

김용직, 「이육사」,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5.

5. 이육사의 문학사적 평가

20131139 최진실

이육사란 인물은 길지도 않는 짧은 생애 동안에 일본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쳤다. 문학보다는 독립운동이 먼저라는 생각에 문학인으로 이루어진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문인들에 비해 많은 작품을 남기지는 못했다.

이육사는 1930년대 일본의 식민지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그러한 현실을 이겨내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 그 의지를 시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내려는 목표를 하고 있었다. 시를 씀으로써 생각한 바를 실제로 행하여 그의 확고한 의지를 실현하게 했다. 시에 현실을 극복하려는 신념이 나타났기에 삶과 시가 하나가 되어 이론 참여문학의 진정한 방향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이육사는 독립투사로서 일제에 항거한 생애를 살아왔고 오직 조국 광복을 마음에 간절히 기원했다.

자신의 삶의 과정에 대한 고통스러운 회고를 담고 있는 <노정기>란 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육사가 저항시인으로서 평가받는 이유를 알 수 있다. ‘항상 흐릿한 밤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가고 전설에 읽어 본 산호도는 구경도 못하는 그곳은 남십자성이 비춰 주지도 않았다.’ 즉 행복한 시간보다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많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속에서 행동의 의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철저한 정신적 자세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절정>이란 시속에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보다 이 시구를 통해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따라서 시대적 상황에 저항하면서 시를 통해 자기 의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려 했기에 일본 식민지 시대를 대표하는 저항시로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 문학사적인 평가를 읽고 나의 평가 또한 비슷하다. 일제에 저항하는 운동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이러한 시대적 암흑의 현실 속에서 주체를 바로 세웠다. 식민지 통치에 대한 저항의 형식으로서 끝까지 많은 시를 쓴 것이다. 시 속에서 이육사가 말하려는 의도와 신념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돌아켜보아 반성 할 수 있게 해주어 뜻 깊었다. 이육사는 일제의 탄압으로 사람들의 언어가 폐쇄되어 있을 때 시를 통해 민족사상을 깨우치려는 목적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시에서 강인한 정신을 표현하여 절대 좌절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도록 저항 정신을 알게 해준 것이다.

참고문헌

*송국현, 「교과서를 만든 시인들」, 글담, 2006, PP.46~56.

*이동영, 「한국 현대시인 연구-2 이육사」, 문학세계사, 1992, PP.237~253.

3조 - 퇴계이황

20131106김소정

1. 퇴계이황의 생애

-관직에서 벗어나 스승의 은혜를 베푼 퇴계



퇴계의 생애는 그의 수학의 시기, 출사의 시기, 은거 강학의 시기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첫째는 출생으로부터 33세가 되는 해까지인데, 이를 수학의 시기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다음으로 그가 급제한 후로부터 병으로 벼슬자리를 내려놓길 원한 49세까지이다. 이 시기를 출사의 시기로 볼 수 있다. 마지막은 그가 50세가 되는 해 임소를 떠난 후부터 70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를 포괄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를 은거 강학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퇴계 이황은 경상도 예안현 온계리(지금의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에서 아버지 좌찬성 이식과 어머니 춘천 박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여덟 남매의 막내인 퇴계 이황에게는 형이 여섯, 누나가 하나 있었다. 퇴계는 생후 7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홀어머니 박씨의 가르침 밑에서 총명한 자질을

키워 갔다. 퇴계가 글을 읽기 시작한 때는 여섯 살 때부터였고, 마을의 『천자문』을 해독할 줄 아는 노인에게서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했다. 12세에 작은아버지 이우로부터 『논어』를 배웠고, 14세경부터 혼자 책을 읽기 시작했다. 또한, 도연명의 시를 사랑하고 그의 사람됨을 흠모하였다. 19세 때는 『성리대전』의 첫 권과 끝 권을 읽는가 하면, 소학을 읽고, 의학강습을 받고, 또다시 『논어』를 정독하는 등 학문에 의욕을 보였다. 퇴계는 20세를 전후하여 『주역』 공부에 몰두한 탓에 건강을 해쳐서 그 뒤부터 다병한 사람이 되어 버렸다 한다. 그러나 이때의 주역 공부는 이후의 저서를 저술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20세를 넘어서는 혼인하여 아들을 얻고 예안을 떠나 서울을 드나들며 세계를 넓혔다. 27세에 진사시에서 수석으로, 생원시에서는 2위로 합격하였다. 이황은 학문에 뜻을 두어 벼슬길에 나서기를 망설였으나, 어머니의 권고에 따라 가세 형편상 할 수 없이 과거 길로 나섰다.

퇴계가 출사한 34세 때 이후로 벼슬을 그만두기로 한 49세까지 그는 29종의 벼슬을 하였는데, 그중 재직 기간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본직 홍문관 벼슬과 겸직 승문원 벼슬이다. 1534년 문과에 급제하고 승문원부정자가 되면서 관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1537년에는 모친상을 당하자 고향에서 3년간 지내고, 1539년 홍문관수찬이 되었다가 곧 사가독서에 임명되었다.

중종 말년에 조정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했고, 이 무렵부터 단양군수에서 풍기 군수로 재직을 옮기는 등 경직으로부터 외직으로 물러나면서, 관계를 떠나 산림에 은퇴할 결의를 굳힌 듯하다. 1543년 성균관 사성으로 승진하자 성묘를 핑계로 고향으로 되돌아갔다. 을사사화 후 건강을 구실로 모든 관직을 사퇴하고, 1546년 고향인 낙동강 상류 토계 서쪽 부근에 거처를 정하고 시냇가에 지은 한서암이란 독서당 속에 파묻혀, 산문야학을 벗 삼아 독서에 전념하는 구도 생활에 들어갔다. 이때에 토계를 퇴계라 개칭하고, 자호로 삼았다.

그 뒤에도 퇴계는 완전히 세상과 손을 끊은 것은 아니다. 구도 생활에 침잠하다가, 1552년 성균관 대사성의 명을 받아 취임하였다. 1556년 홍문관부제학, 1558년 공조 참판에 임명되었으나 여러 차례 고사하였다. 1543년 이후부터 이때까지 관직을 사퇴하였거나 임관에 응하지 않은 일이 20여 회에 이르렀

다. 한서암에 모여드는 학도들을 위해 새로운 터를 구하여 1560년 도산 서당을 짓고 아호를 ‘도옹’이라 정했다. 이로부터 7년간 서당에 기거하면서 독서·수양·저술에 전념하는 한편, 많은 제자를 훈도하였다. 명종은 자주 그에게 출사를 종용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명종이 돌연 죽고 선조가 즉위해 그를 부왕의 행장수찬청당상경 및 예조판서에 임명하였지만, 신병 때문에 부득이 귀향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황의 명성과 덕망이 조정과 민간에서 높아, 선조는 그를 승정대부 의정부우찬성에 임명하며 간절히 초빙하였다. 그는 사퇴했지만 여러 차례의 부름을 물리치기 어려워 마침내 68세의 노령에 대제학·지경연의 중임을 맡았다. 그 뒤 이황은 정이의 『사잠』, 『논어집주』·『주역』, 장재의 『서명』 등의 학문의 이치를 선조의 앞에서 강의하였다. 노환 때문에 여러 차례 사직을 청원하면서 왕에 대한 마지막 봉사로서 필생의 심혈을 기울여 『성학십도』를 저술하여 어린 국왕 선조에게 바쳤다. 1569년 이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번번이 고향으로 돌아가길 간청해 마침내 허락을 받았다. 그 후 학문 연구에 힘 쏟았으나, 다음 해 11월 종가의 시제 때 무리를 해서인지 병세가 악화하였다. 그달 8일 아침, 평소에 사랑하던 매화분에 물을 주게 하고, 침상을 정돈시킨 후, 일으켜 달라 해 단정히 앉은 자세로 죽음을 맞이하였다.

이를 보면 이황은 학문에 매우 관심이 많고 학문연구에 의욕이 많았으나, 버슬 욕심은 무척이나 없었던 듯하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는 등 어려운 환경에도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왕에게 신임받는 신하가 되어 나라의 부름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를 양성하며 퇴계의 이상인 착한 사람 많이 만들기를 ‘평생사업’으로 추진해나갔다. 학문이 깊을 뿐만 아니라, 언행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퇴계는 학문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됨됨이를 배울 수 있는 모범적인 분이셨던 것 같다. 조정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깊게 신임을 받았다는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그 당시의 민심을 바로잡고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덕적 의리를 알리는 등 후세의 사람들이 보기에 많은 점을 본받을 수 있는 뜻깊은 일생을 보내셨다.

*3조 전체 참고문헌

이장후, 장세후 옮김, 「퇴계 잡영 연암서가」, 2009년 4월 10일 초판 1쇄 발행 7쪽
 권오봉 지음, 「퇴계선생 일대기」, 교육과학사, p15-24, p166-169, p185-206
 이상은 지음, 「퇴계의 생애와 학문」, 예문서원, p17-73
 위인을 찾아서 - 새 천년을 꿈꾸며 / 네이버 지식백과 (조선 역사)
 네이버지식백과, 퇴계마을의 노래 (지식산업사), 퇴계 매화시첩 (보고사)

2. 퇴계이황의 업적

20131125윤혜진

-진정한 스승의 미덕을 보여준 퇴계

퇴계 이황은 조선 시대의 학자였다. 퇴계는 한번 책을 손에 잡으면 먹는 것과 자는 것을 잊을 정도로 공부에 열중하던 사람이었다. 퇴계는 1528년에 소과에 합격하고 1533년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국립대학이었던 성균관에 들어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심경주부'라는 책을 얻어 읽게 되었고 이 책을 읽고 난 후 '우주 만물의 근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고 퇴계의 학문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후 승진을 거듭하여 성균관 사성이 되었지만 사직하고 고향에 내려가 학문에 몰두했다. 그는 이전에 서울에 있을 때 주자 전서를 읽고 여기에 빠져 성리학을 연구했다. 그 결과 성공하셔서 '동방의 주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 그 후, 조정에서 부름에도 관직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1550년 풍기군수 시절에는 소수서원 사액을 실현했다.

1552년 다시 조정의 부름을 받고 홍문관 교리, 대사성, 부제학, 공조참판 등에 임명되었지만 모두 거절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학문에 열중하였다. 모든 관직을 거절한 퇴계는 고향에 돌아와서 한서암을 짓고 1555년에는 최초의 사액 사원인 도산서원을 지어 학문을 연마하고 사색의 생활을 이어갔다. 학문을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으며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도산 12곡'을 엮기도 하였다. 이황의 사상은 거의 50~60세에 완성되었다. 변론, 저술, 편저 등 중요한 것들은 이때에 완성되었으며 살아가면서 《계몽전의(啓蒙傳疑)》,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송계원명이학통록(宋季元明理學通錄)》, 《인심경석의(人心經釋疑)》 및 기대승과 문답한 《사단칠정분리기서(四端七情分理氣書)》와 같은 책들을 썼다.

명종 말에 예조판서가 되고 1568년 대제학, 판중추 겸 지경인사 등이 되어 선조에게 《성학십도(聖學十圖)》를 바쳤다. 성학십도는 자신이 몇 십 년에 걸쳐 공부한 성리학의 요체를 열 가지로 도설화한 것이다. 퇴계가 죽자 선조는 시호를 내리고 영의정을 추증하였으며, 1610년 문묘에 모셨다.

79번이나 관직을 거절하며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도 학문을 닦고 사색을 즐기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몰두한 퇴계야말로 학자와 선비로서 청렴하고 고결한 성품을 지녔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3. 퇴계이황의 작품

20131141허송이

-평생을 시와 함께한 퇴계



이황 선생님께서 평생 쓴 시중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만 하여도 한시가 대개 2,000수 이상이고, 편지가 1,000통 정도가 넘는다고 한다. 또한, 문집에 수록되지 않은 것이 2,000수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퇴계”라는 마을에 살면서 읊은 시만 뽑아서 자필로 정리해둔 것이 <퇴계 잡영>이라는 책이고, 도산 서당에 거처하면서 그 서당 주변의 경관을 읊은 시들만 뽑아서 자필로 정리해 둔 것이 <도산 잡영>이라는 책이다. 또한, 매화에 관련된 시가 모두 72제 107수인데, 이 가운데 62제 91수를 선생께서 손수 써서 따로 책으로 묶은 것이 바로 <매화 시첩>이다.

이황 선생님의 작품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잡영’이라는 뜻에 대하여 알아보자. ‘잡영’이라는 말은 ‘잡시’라는 말과도 통하는데, 아무렇게나 쓴 시라는 뜻이 아니라, 이러 저러한 흥취가 생겨날 때, 특정한 내용이나 체제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일이나 사물을 만나면 즉흥적으로 지어내는 시를 말한다. 이황 선생님은 이러한 ‘잡영’을 주로 즐겨 쓰곤 하셨다. 그래서 이황 선생님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정치적으로 심오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 보다는 자연을 주제로 한 자연 친화적인 작품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사물들을 소재로 삼아 주로 시를 쓰곤 하셨다.

대표적인 잡영 시인 ‘퇴계’를 보면 관직에서 물러나 자연으로 오면서 경쟁자가 없어지자 자신의 학문이 퇴보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러지 말자 다짐하기 위해 퇴계라는 호를 쓰기로 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이황 선생님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도산십이곡’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랴? 시골에 파묻혀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다고 어떠하랴? 더구나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고질 병처럼 된 버릇을 고쳐서 무엇 하랴?” 첫수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자연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 도산십이곡에서는 임금에 대한 사랑, 학문 수행에 전념하는 모습 등 이황 선생이 중요시했던 것들을 찾아 볼 수 있다.

4. 문학사적 의의

20131104김민섭

-죽음의 순간까지 붓을 놓지 않은 퇴계

퇴계 이황의 작품을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그가 남긴 문학사적 의의를 알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퇴계 이황의 작품 중에는 ‘도산십이곡’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12수로 된 연시조이다. ‘도산십이곡’은 전 6곡과 후 6곡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전 6곡에서는 사물을 접함으로써 느끼는 감흥을 노래하였고 후 6곡에서는 학문에 대한 것을 노래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중국 문학을 빌렸음은 물론 어설픈 한자어들이 많이 들어있어 문학적으로는 높이 평가할 수는 없는 작품이다.

퇴계 이황이 평생 쓴 시 중에 아직 남아있는 것만 해도 2,000수가 넘는다고 한다. 이 가운데에 자신이 ‘퇴계’라는 마을에 살면서 읊은 시만 간추려서 자필로 정리해놓은 책이 ‘퇴계잡영’이라는 책이고, 도산 서당에 지내면서 그곳 주변의 경관을 읊은 시들을 뽑아 자필로 정리해둔 것이 ‘도산잡영’이라는 책인데, 이 책들은 후에 모두 목판본으로 간행되기도 했다. 이 희귀한 자필 자선 시고는 비록 부분적으로 책장이 빠지는 일이 있긴 하지만 지금 계명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이원주 교수가 주관하여 발간한 ‘퇴계학문헌전집’의 별책부록으로 복사되어 보급되었다. 한 권은 퇴계(퇴계)라는 마을을, 한 권은 도산 서당을 읊었는데, 퇴계가 청량산 주변을 읊은 글을 후손들이 별도로 모은 ‘오가산지’까지 합하면, 퇴계 선생이 고향에서 살던 모습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퇴계 선생이 평생 남긴 매화 시는 모두 72제 107수인데, 이 가운데 62제 91수를 선생께서 손수 써서 따로 책으로 묶은 것이 바로 ‘매화시첩’이다. 이처럼 매화 시만을 따로 묶은 것은 선생이 유독 매화를 축호하였기 때문이다. 선생이 평생 얼마나 매화를 좋아하였는지는 선생이 세상을 떠나던 날의 기록에서도 역력히 알 수 있다. 매화는 동아시아가 원산지인 나무인데, 일찍부터 그 열매로 만든 매실 식초는 동아시아 고대인들에게 소금과 함께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조미료였다. 그래서 고대문헌에서 소금과 매실식초는 항상 ‘염매’라고 병칭되었다. 이런 이유로 ‘시경’에서는 매화의 열매가 꽃 대신 언급되었다. 매화가 문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이미 육조 때부터였다. 그러나 매화의 순결성과 서리와 눈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강인한 정신은 송나라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읊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로부터 매화는 영원한 산림처사의 꽃으로 상징되게 되었다. 퇴계 선생이 매화를 사랑한 것은 바로 산림처사로서의 상징성 때문이었다. 선생의 매화에 대한 축호는 결코 한 사물에 대한 집착이 아니고, 오히려 도연명이 국화를 사랑하고, 주돈이가 연꽃을 사랑함으로써 한 사물에 대한 집착을 영원히 벗어나고자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으리라. ‘매화시첩’에 수록된 시는 임인년 42세 때의 작품에서부터 선생께서 타계하신 해인 경오년 70세 때까지의 작품들이다. 그러므로 ‘매화시첩’은 선생께서 돌아가시기 불과 몇 달 전에, 평생 제작하였던 매화 시들 가운데서 특별히 선별하여 손수 써서 묶은 것이라고 짐작된다.

이처럼 다양한 방면으로 자신의 작품을 남긴 퇴계 이황은 문학사적으로 굉장한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한다. 많은 양의 시도 물론 훌륭하지만, 그의 작품을 향한 정신이 우리가 지금까지 그를 이토록 존경할 수 있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앞으로 우리의 후손도 이황의 작품을 보전시켜 그의 정신을 본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점에서 이황의 작품은 의의가 있다.

4조 - 이현보

1. 생애

20121122 변지선



농암 이현보(李賢輔) 선생은 세조 13년, 1467년 7월 29일에 경상도 예안현 분천에서 출생하였다.

이현보의 자는 비중, 호가 농암, 본관은 영천으로 아버지인 이흠(李欽)과 어머니인 안동 권씨(權氏)의 아들이다.

농암은 태어나면서부터 재주가 뛰어나고 골상이 비범하였고, 학문보다는 사냥을 좋아하였다.

농암이 19세(1485년)에 향교에 가게 된 이후로 학업에 정진하게 되었다. 20세(1486년)에 홍귀달의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정문(程文)에 뛰어났다. 29세(1495년)때 생원시¹⁾에 2등으로 합격하였고, 32세(1498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교서관권지부정자에 있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여러 관직을 거쳤다.

이현보가 22세(1488년)에 권효성의 딸 권씨와 혼인을 하였고, 생전에 세 아들인 희량(希梁), 충량(沖樑), 계량(季樑)을 슬하에 두었다.

이현보 생애에서 가장 큰 특징을 말하자면 이현보는 총 네 번의 사화(士禍)²⁾를 겪었다. 32세(1498년)에 무오사화, 38세(1504년)에 갑자사화, 53세(1519년)에 기묘사화, 79세(1545년)에 을사사화가 일어났다. 그 사이에 농암은 연산군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로 안기역에 유배되었었고, 두 차례 해직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40세(1506년)에 중종반정³⁾을 계기로 성균관으로 복직되었었다.

농암은 42세(1508년)에 부모님을 위해 영천군수가 되었다. 46세(1512년), 농암은 부모를 위해 애일당(愛日堂)을 건립하였고, 53세(1519년)에는 안동부사로서 안동 내 노인들을 위한 양로연을 개최하였다. 이런 점들을 보아 농암 이현보는 부모에 대한 효(孝)와 노인들에 대한 공경심이 가장 컸음을 알 수 있다.

계속 은퇴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했던 농암은 본인 나이가 76세(1542년)에 마침내 은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때부터 강호 생활이 시작되었고, 강호 생활을 시작으로 농암은 여러 작품을 쓰게 된다.

농암 이현보 선생은 명종 10년(1555년) 6월 13일, 89세의 나이에 병으로 궁구당에서 생애를 마감했다. 그 후에 효절(孝節)이라는 시호를 받게 되었다.

참고문헌: 이병휴 외, 「농암 이현보의 문학과 사상」, 안동대학교, 1992년, p.111~115

네이버 지식백과, 다음 블로그(blog.daum.net/likedream12/16536937),

1) 시대에, 소과(小科) 가운데 '사서오경'을 시험 보던 과목. 초시(初試)와 복시(覆試)가 있었다.

2) 조선 시대에, 조선(朝廷) 및 선비들이 정치적 반대파에게 몰려 참혹한 화를 입던 일.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가 있었다.

3) 조선 중종 1년(1506)에 성희안, 박원종 등이 연산군을 몰아내고 성종의 둘째 아들인 진성 대군(晉城大君), 곧 중종을 왕으로 추대한 사건.

2. 농암 이현보의 유적지

20131107 김수동



농암 이현보 (1467-1555)선생과 관련된 유적지에는 대표적으로 농암 종택을 꼽을 수 있다. 이현보 본인이 생전에 살던 농암종택은 본래 도산면 분천동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안동댐 건설 문제로 현재는 그 위치가 옮겨져 정확히는 경북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에 자리하고 있다.

농암종택은 1370년 지어져 현재까지 이현보 선생의 직계자손들이 대를 이어 살아오고 있다. 건물의 구조는 사당, 안채, 사랑채 등이 있는 본채와 금구당, 명농당등이 있는 별채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바깥마당에는 구인수(九印樹)라고 불리는 해나무가 있다. 이 나무의 이름에는 유래가 있는데, 과거 이현보 선생의 장수를 축하하는 수연이 열리면 아들, 사위 등 9남매가 벼슬을 해서 그 벼슬을 상징하는 인꾼이 9개가 매달렸기 때문이다.



농암 이현보 선생의 또 다른 유적지로는 1827년 순조 때 건설된 농암 사당이 있다. 이곳은 농암 선생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농암종택과 같은 안동댐 건설 문제 때문에 예안면 분천리에 자리 잡았던 사당이 도산면 운곡리에 옮겨져 있는 상태이다. 농암 사당 내부에는 이현보 선생의 위패뿐 아니라 이현보 선생의 경상도 관찰사 시절의 영정이 봉안되어있다. 또한, 이곳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1호로 등록되어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농암종택 사이트(<http://www.nongam.com/>),

네이버 지식백과, 다음 블로그(blog.daum.net/cacahoho/17173051)

사진 출처- www.encyber.com

네이버 지식백과, 다음 블로그(blog.daum.net/cacahoho/17173051)

3. 농암 이현보의 대표작품

20131127 이나래

어부단가(漁父短歌)/이현보(李賢輔)

문쳐 시름업스니 漁父(어부)의 生涯(생애)이로다.
一葉片舟(일엽편주)를 萬頃坡(만경파)에 띄워 두고,
人世(인세)를 다 니졌거니 날 가노주를 알라. <제1수>

구버는 千尋綠水(천심녹수) 도라보니 萬疊青山(만첩청산)
什長 紅塵(십장 홍진)이 연매나 그렛노고,
江湖(강호)에 月白(월백)하거든 더욱 無心(무심)하애라. <제2수>

靑荷(청하)에 바늘 뺏고 綠柳(녹류)에 고기 빼어
蘆荻花叢(노적화총) ㅅㅅㅅㅅ야 두고
一般清意味(일반청의미)를 어느 ㅅ 부니 아랴 ㅅ 실고. <제3수>

山頭(산두)에 閑雲(한운)이 起(기)하고 水中(수중)에 白鷗(백구)이 飛(비)이라.
無心(무심)코 多情(다정)하니 이 두거시오다.
一生(일생)에 시름을 닛고 너를 조차 노로리라. <제4수>

長安(장안)을 도라보니 北關(북궐)이 千里(천리)로다.
魚舟(어주)에 누어신들 니즌 스치 이시라.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濟世賢(제세현)이 업스랴. <제5수>

<농암집(聳巖集)>

《어부단가》는 십이가사(十二歌詞)의 하나이다. 고려 시대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어부가》의 장가 12장을 9장으로, 단가 10장을 5장으로 개작을 한 것이다. 나중에 《어부가》를 개작한 어부단가는 孤山(고산) 윤선도의 《漁父四時詞(어부사시사)》에 영향을 미쳤다.

어부단가의 갈래는 연시조이고, 율격은 3(4).4조 4음보이다. 어부단가의 성격은 한정가, 자연 친화적이다. 구성은 5수로 되어있고, 제1수의 주제는 인간세상을 잊은 어부의 한정이다. 제2수는 자연에 묻혀 사는 유유자적한 어부의 생활이며, 제3수는 자연의 참된 의미를 아는 사람이 적음을 탄식한다. 제4수는 속세의 근심을 잊고 한가로이 지내고 싶은 소망을 나타낸다. 제5수는 우국충정(憂國衷情)을 나타낸다. 지은이는 나이가 들어 시골에서 벗들과 소일거리를 할 때 이 노래를 즐겨 불렀다고 한다.

어부단가는 속세를 떠나 자연에 묻혀 살며 풍류를 즐기는 어부의 삶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속세를 떠나서 자연을 즐기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품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이유는 이현보가 살았던 16세기의 정치문제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그 시대는 당쟁이 심하여 정치적으로 혼란스럽던 시대였다. 그래서 이현보는 자연 속에서 노닐면서도 현실의 문제를 완전히 잊고 즐길 수가 없던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경관에 대한 감흥을 크게 표현하지 않고 억제 많이 하여 표현을 했다.

참고문헌, 출처:안동문화연구소, 「농암이현보의 문학과 사상」, 안동대학원, 1992.11, p.404~412
<http://blog.daum.net/hansoonee/7863354>, <http://blog.naver.com/kkding/168321632>

4. 농암 이현보의 업적

20131108 김시은

이현보라는 인물은 조선 시대 강호가도의 창시자와 같은 인물인데, 그의 업적에서 [어부가(=어부단가)]는 대표작으로 이름난 작품이다. 이 [어부가]는 본래 10장의 연시조였던 [어부단가]를 접하게 된 이현보가 지인인 ‘이 황’과 함께 본래의 연시조를 개작하여 5수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주고받은 서신을 통하여 밝혀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어부의 삶을 노래한 전체 5수 중 제3수는 본래의 시조를 줄인 제1, 2, 4, 5수와는 달리 그가 창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서신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데, 나머지 수에서는 계속 언급되는 ‘시름’이라는 단어가, 제3수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고 한다. 전문가의 평에 의하면, 이현보가 이전의 어부노래를 거의 그대로 계승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제3수를 본래의 연시조에서 삭제하였던 제6, 7수에서 조합 정리하여 만든 것에서 뒷받침된다. 또한 이현보가 정리한 이 [어부가]는 정치에 나서서 뜻을 펼치려 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스스로 정치적 경험에서 작품의 내적 현상을 구하였고 그가 추구한 강호자연은 정치에서 벗어난 공간이자 부패한 세속에 대립하는 도덕적 완전성의 영역으로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조정이나 재야를 막론하고 성리학적 공도 실현을 목표로 했던 사람의 정신으로 연산군에게 상소했다가 도리어 노여움을 사고 유배되었다. 이러한 시련은 중조반정이후에도 주어졌기에 그로 하여금 정치현실의 꿈이 깨진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그는 속세에서 벗어나 귀거래⁴⁾를 도모하기에 이른다. 이때 그가 그린 ‘귀거래도’와 ‘농암가’는 그의 귀거래 의지를 볼 수 있는 작품으로서, 특히 ‘농암가’는 한문이 아닌 우리글로서 작품창작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말 시가로서의 격을 완전히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는 큰 국문학적 의의를 가진다.

강호가도라는 문화양상은 농암이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농암은 강호가도의 선구자로서의 위상은 ‘귀거래’를 통해 구현시켰는데, 당시의 시대정신을 자연 친화로 구현하면서 벼슬에서 물러나 자연에 묻혀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펼쳐 보였다. 동시에 귀거래 후로부터 국문문학을 위주로 하여 문학적 삶을 이어감으로써 사대부의 국문 시가 전통을 마련했다.

강호문학이란, 자연 속에 살아가는 느낌과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기존 강호 문학은 중국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한문으로 우리의 느낌과 흥취를 담아 표현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시가를 읊을 수는 있어도 노래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이현보의 [어부가, 농암가] 등의 작품을 통해 개선되어 보다 자유롭게 표현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어부가]는 그가 완전히 창작한 것은 아니지만, 잊힌 본래의 ‘어부가’의 가치를 발견하여 후대에 전해, 조선 시대 강호가도를 발전시켰기에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그의 업적이라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창원, 「강호시가의 미학적 탐구」, 2004/p.~181,

안동대학교, 「농암 이현보의 문학과 사상」, 1992, p.204~206, p.212~213,

국립중앙박물관, 「때때옷 선비 농암 이현보」, 2007, p.46

4) 사임하고 고향으로 돌아감

5. 농암 이현보의 문학사적 의의

20131142 호예원

관직에 종사하던 이현보는 이른 시기부터 벼슬을 관두고 고향에 내려가길 원했다. 고향 분강촌에 내려가서 이황, 이언적 등과 함께 어울려 고향의 풍류를 즐기면서 노래하는 시를 지었다. 이러한 생활이 이현보의 대표작 어부가가 탄생하는 배경을 마련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부가는 이현보가 전에 있던 어부가를 새로 고쳐 탄생시킨 것이다. 고향에서 이현보는 고려 시대의 어부가에 사로잡혔다. 한문에만 우리말이 덧붙여진 이 노래는 이전의 한문시가와는 다르게 우리 민족의 정서를 진솔하게 담아내었다. 이현보는 이 노래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다. 노랫말의 순서와 내용을 고치고 다듬어서 새로운 어부가를 탄생시켰고, 이 어부가는 후세에 영향을 미쳤다. 영남 지역 가단(歌壇)⁵⁾의 형성, 그리고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로 이어지는 조선 시대 강호시가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강호 문학은 중국에서 유래되었다. 그래서 중국인의 감정과 중국인의 언어인 한문으로 표현된 기존의 강호 문학은 우리나라의 정서와는 맞지 않았다. 그들의 문학은 우리가 옮기에는 가능했지만, 우리 민족의 정서와 느낌을 그들의 언어로 표현하고 우리의 흥을 담아 부르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이현보에 의해서 해결이 된다. 이현보의 어부가, 농암가 등의 작품과 송순의 면앙정가를 통해 개선된다. 이후 한문과 국문을 함께 사용하여 우리의 생각과 정서를 표현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강호 문학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듯 이현보와 송순은 우리나라 강호문학의 전통을 마련했다.

이현보 이후 강호 문학의 전통은 이현보의 고향후배, 이황이 계승한다. 많은 영향을 받았던 이황과 이이와 같은 도학자들이 강호시가의 영역에 합류하고 여러 작품을 창작한다. 이로써 강호 문학은 선비들의 한 분야인 문학으로 자리 잡아갔고, 나아가 정철, 박인로, 윤선도에 이르며 강호 문학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현보의 대표적 업적은 사라져가던 어부가의 참모습을 알아보고, 그것을 새로이 다듬어 후세에 전해준 것이다. 그러나 이현보의 어부가는 후세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현보의 어부가는 우리나라의 강호 문학의 기초를 만들어 주었고 그 이후의 강호 문학을 풍성하게 만든 디딤돌이 됨으로써, 우리나라 문학의 한 장르를 새로이 창조시킨 것이다.

참고문헌: 김창원, 「강호시가의 미학적 탐구」, 보고사, 2004, P.45~70

5) 사람들의 모임.

5조 - 조지훈

1. 생애

20131143 홍빈나

1920년 12월 3일, 한국문학의 큰 별, 시인이자 국문학자인 조지훈이 태어났다. 출생지는 경상북도 영양군으로 그의 본명은 조동탁이다.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일제강점기라는 시기를 거쳐서 자신의 작품 활동을 했다. 그의 문학 대표작으로는 <승무>, <고풍의상>, <봉황수>, <풀잎단장>, <역사 앞에서>, <여운> 등등이 있다.

그는 작품 활동뿐만 아니라 문학평론가, 수필가, 번역문학가, 사회운동가, 대학교수, 한국시인협회회장로서 여러 활동을 하였다. 특히 그는 전국문화단체 총연합회 중앙상임위원과 한국 문학과 협회 중앙상임위원, 국제시인회의 한국대표, 한국시 60년 기념 사업회회장등 문학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를 만큼 명성이 뛰어났다.

문학적 활동을 살펴보자. 그는 청록파 시인이었다. 청록파란 주로 자연을 제재로 하여 시작 활동을 하는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등 세 시인을 일컫는 말이다. 시인으로 잘 알려진 그는 자연이나 불교에 대한 작품을 많이 썼다. <승무>, <고사>, <범종>과 같은 작품은 불교적 색채가 짙은 작품이다. 불교에 대해 관심도 많고 지식도 많았던 그는 오대산 월정사에서 불교 전문 강원 강사로도 활동하였다.

그는 불교에 대한 색채뿐 아니라 민족적 색채도 뛰어났다. 이는 ‘청록집’의 시편들에서 민족의 역사를 잘 묘사한 점에서 알 수 있다. 그가 살았던 시기는 일제강점기였음에도 민족적 색채가 돋보이는 작품을 썼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평생을 자국에 대한 사랑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조지훈은 평소 유교적 인간관과 문학적 소양을 쌓기 위해 월록서당에서 문학을 공부하면서 생활하였다. 그러던 중 1968년 병을 얻고, 얼마 후인 1968년 5월 17일 눈을 감았다. 이후 경기도 양주군 마석리에 안장됐고, 1972년 서울 남산에 시비가 세워졌다.

참고문헌: 이응백 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중앙연구원, 2008

2. 대표작품

20131109 김연수

승무

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짝은 머리
박사 고깔에 감추오고
두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에 황촉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앞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올린

외씨보선이여!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이 밤사 귀뚜리도 지새는 상경인데
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조지훈의 승무는 승무를 통해 삶의 고뇌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이다. 한밤에 여승 혼자 추는 승무는 세속적 욕망과 번뇌를 끊고자 하는 간절한 몸부림으로 볼 수 있다.

이 시의 주된 갈등양상은 세속적 욕망과 종교적 염원이다. 세속적 아름다움으로 상징되는 번뇌를 끊기 위한 몸부림이 승무이고, 이 승무는 종교적 정화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승무를 추는 행위는 종교적 성취와 관련되어 있다.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와 같은 구절은 종교적 승화의 간절한 염원이 묘사되어 있다. 번뇌를 깨치고 참된 진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욕망이 '별빛'을 지향하게 한 것이다. 또한, '거룩한 합장'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장하는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세속적 번뇌를 끊고 종교적으로 정화된 수도승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시는 1939년인 일제강점기에 쓰였는데, 이 시를 통해 식민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전통적 정서와 리듬을 지키려는 작가의 민족의식을 느낄 수 있다. 조지훈의 청년기는 전통에 대한 왜곡이 진행되는 식민지 상황 속에서 우리 고유의 시적 리듬과 운율은 조소의 대상이 되던 시기였다. 그러나 그는 스승 정지용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의 전통적 정서와 리듬을 지키는 방향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갔다.

그런 면에서 이 시의 기본적인 운율은 4음보의 변형으로 볼 수 있는데, 시조의 기본 형식인 4음보 체는 전통적 정서가 강했던 조지훈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율격이다. 특히 5, 6, 7행은 2행의 구조에서 첫 행은 춤의 동작을, 두 번째 행은 종교적 염원을 담고 있다. 이처럼 조지훈은 자신의 시에 민족적인 색채를 잘 드러내었다.

참고문헌: 김혜니 외 3명, 「꼭 읽어야 할 시 369」,타임기획, 2007, p208~211 p307~310

3. 문학세계

20131128 이민정

시인 조지훈은 1940년 정지용 추천으로 '문장'에 시 〈고풍의상〉, 〈승무〉, 〈봉황수〉를 발표했다. 조지훈의 시적 작업은, 고풍의상과 승무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중 〈승무〉는 그의 시중 가장 유명한 시로 알려져 있다. 승무는, '나빌레라', '서러워라', '별빛이라'처럼 고전적인 표현으로 리듬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그는 1940년 2월 〈봉황수〉, 〈향문〉으로 문장지의 추천을 완료하였으며, 이 무렵 동인지 '백지' 등을 간행하였다. '백지'에 〈계산표〉, 〈귀곡지〉, 〈진단서〉 등을 발표했는데, 이 시들은 대부분 회상적이고, 민족적인 소재를 사용했다.

불교적 인간의식을 보여준 시로 〈고사1, 2〉·〈낙화〉 등을 발표했으며, 〈완화상〉-(박목월의 〈나그네〉에 답하는 시)를 발표했다. 또한, 1946년 박두진·박목월 등과 시집 〈청록집〉을 펴낸 뒤로는 '청록파' 시인으로 불렸다. 이어 시 〈색시〉, 〈편지〉·〈그리움〉 등을 발표하고, 시집 〈풀잎단장〉과 〈조지훈 시선〉을 발표했다.

그는 불교의식이나 서정세계로만 시를 쓴 것이 아니다. 현실사회를 대상으로 시를 쓰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때 쓴 〈동물원의 오후〉에는 민족의 참상과 슬픔이 역설적으로 나타나 있다. 6·25 전쟁 중 종군작가로 참전하면서 쓴 〈다부원에서〉와 〈패강무정〉 등에도 이러한 표현이 잘 나타나 있다.

특히 〈다부원에서〉는 조지훈이 전쟁 직후 황폐해진 다부원에서 시체더미를 목격하고 전쟁의 비참함과 파괴성을 표현한 시이다. 시집 〈여운〉-(부제:'4월 혁명의 사회 시')에는 자유당 말기에 정치의 고발과 4·19혁명의 정치적 개선을 쓴 〈터져 오르는 함성〉 등의 시가 실려 있다. 청록파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인 박두진은 그를 "투명한 감성, 밝은 지성, 예리한 감각과 윤택한 정서를 통하여 한국의 현대시사에 하나의 불멸의 업적을 남겨놓았다"고 평가했다.

해방 직후 조지훈은 혼탁한 상황 속에서 시인의 긍지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란 오직 〈순수〉를 지키는 길뿐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가 강조하고 있는 〈순수〉라는 것은 시에 사상이 없거나, 정치성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를 쓰는 것을 뜻에 두었다. 후에 조지훈은 〈순수시의 지향〉을 발표함으로써 해방공간의 시운동의 방향을 새롭게 조정해 보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는 시를 통해 민족을 말하기 전에 우선 시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시의 순수성을 고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출처: 최승호, 「새미작가론 총서 17 조지훈」, 새미, 2003

강양희, 「조지훈의 문학 연구」, 충남대학교출판부, 2003

4. 문학사적 의의

20131111 김재우

조지훈은 한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2살의 젊은 나이부터 조선어학회 <큰 사전>의 편찬위원이 되었고, 1946년에 전국문필가협회와 청년문학가협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기도 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였으며, 6.25 때는 중국 작가로 활약하고 만년에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소장으로서 <한국문화사대계> 사업을 추진하는 등 문학사에 있어 여러 가지 일에 이바지하였다.

한국 문학사에 대한 조지훈의 영향을 이야기하자면 ‘청록집’을 빼놓을 수 없다. ‘청록집’은 조지훈, 박두진, 박목월 3인의 공동 시집으로 조지훈 스스로 해방 후 시의 세계에 집대성적 영향을 주었다고 할 만큼 자부하는 문집이었는데, 해방 전후의 문학을 이어 놓은 다리역할을 충실히 해낸 ‘청록집’은 한국시 문학사에서 의미가 크다. 청록집의 시편들은 자연 친화라는 동양의 자연관을 품고 있고, 일제 말에 민족어로 갈고 닦은 시라는 점에서 일제 말 암흑기에 민족의 정신적 버팀목으로서 큰 시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조지훈의 첫 시집인 <풀잎단장>은 고전적인 한가롭고 여유로운 분위기와 불교적 세계관이 잘 드러나 있고, <조지훈시선>은 세기말적 자아의식, 생명에 대한 경의 등 자의식의 심화와 그 지평의 확대가 잘 드러난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은 시집들이다.

이처럼 조지훈은 아름다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생명 탐구적인 시 세계를 가졌지만, 그는 민족지사로서의 면모도 가지고 있었다. 미적 정서의 서정구조, 동양의 하늘 등을 맴돌던 그의 시 의식은 일제의 억압, 6.25의 참상 등을 겪으며 역사의식을 지닌 현실참여적인 방향으로 변모하게 된다. 시집 ‘역사 앞에서’에서 작가는 ‘시가 두 번 다시 슬픈 역사 앞에 서지 않길 바란다.’라고 하였는데, 작가 본인의 뚜렷한 역사관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 할 수 있다. 그런 그의 가치관은 그의 시세계에 반영되어 그의 작품은 해방을 전후하여 4.19까지의 역사 현장과 그 궤적을 함께하였다. 이렇듯 조지훈의 사명의식은 혼탁한 시류 속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개성의 자유를 지지하며, 인간성의 해방을 주장하며 민족사의 갈 길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

종군기사로서도 활약하였던 조지훈은 누구도 가지 않으려 하는 전장을 누비면서 역사의 현장을 시화한 전쟁시 17편을 남기었다. 특히 그의 시 중에서 ‘다부원에서’는 전쟁의 참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시로서 우리 동포 간에 일어났던 동족상잔의 비극을 절실하게 묘사하였다.

이렇듯 조지훈은 서정적 미의식을 품고 한국적인 전통의식과 민족 정서를 시로 형상화해 내었던 인물이며, 한 명의 지사로서 사명감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비극의 역사현장과 함께하며 그 현실을 생생하게 증언해낸 한국 문학사와 그 흐름을 같이 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최병준, 「시와 삶의 미학」, 한국문학사, 1997, p60~p109, p209~214

네이버 지식백과 - 조지훈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616&docId=549327&mobile&categoryId=>

5. 조지훈의 유적지

20121142 김기훈

조지훈의 생가와 문학관이 있는 주곡리는 전체가 기와집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을 구성원 모두가 일가친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쪽으로 일월산이 있고, 서쪽에는 청기면, 동쪽은 수비면, 남쪽은 영양읍과 맞닿아 있다. 주곡리의 주실 마을은 조지훈이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마을이다. 주곡리 주실 마을의 마을 입구에는 500여 명의 문하생들이 세운 조지훈과 조지훈의 형인 조동진의 시비가 마주 보고 서 있다. 또한, 일제 강점기의 서슬 퍼런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던 지조 있는 마을로도 유명하다.

‘호은 종택’이라는 문패를 들고 있는 조지훈의 생가는 마을의 중앙의 맨 앞집이다. ‘호은’은 이 마을 주실 ‘조’씨들의 시조로 1629년 ‘호은’ 둘째 아들 조정형이 건축하였으나, 6.25 전쟁 때 일부 불타 소실되었다가, 1963년 복구하였다. 생가 내부는 단아하고 깨끗하게 꾸며져 있다.

마을 내에 있는 지훈 문학관은 2007년 5월 18일 날 개관하였다. 대지 850평에 건평 약 160평 규모로 30억 원을 들여 완공했으며 ‘ㄷ’자 한옥으로 전시공간이 아늑하여 평안히 감상할 수 있다. 조지훈의 미망인이 직접 ‘지훈 문학관’이라고 쓴 현판이 걸려있다. 문학관에 들어서면 조지훈의 대표 시 ‘승무’가 흘러나온다. 전시실 4개와 시청각실, 그리고 문학 활동 등을 연대순으로 정리해 놓고 육필원고가 전시되어 있으며 생전에 몸에 지녔던 유품이며 사진 100여 장이 가족사진과 함께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시장의 동선을 따라가 보면 조지훈의 소년 시절 자료들, 광복과 청록집 관련 자료들, 격정의 현대사 속에 남긴 여운, 지훈의 가족 이야기, 미망인 김난희 여사가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린 작품, 지사로서의 지훈 선생의 삶, 지훈의 시와 산문, 학문 연구의 핵심 내용, 조지훈의 선비로서의 삶의 모습 등등을 살펴볼 수 있다. 그 외 전시물 중에는 조지훈이 쓴 주례사와 감사장, 위촉장, 표창장 등의 자료를 비롯하여 평소 썼던 문갑과 서랍도 전시되어 있다.

문학관과 연결된 길을 걸어 마을 뒤편으로 올라서면 ‘조지훈의 시비 공원’ 나온다. 조지훈의 시 가운데 골라 뽑은 20여 편이 돌에 새겨져 있으며, 시 속의 주인공들이 동상으로 서 있거나, 앉아있다. 또한 쉴 수 있는 쉼터와 자그마한 공연장이 마련되어 있다.

전시관 외에도 주실 마을에서는 조지훈이 어릴 때 공부하였던 월록서당 등을 돌아볼 수 있다.



좌: 월록서당
우: 지훈시공원



좌: 조지훈 생가
우: 조지훈 문학관



참고문헌: 조선희, 「작가의 고향을 찾아서」, 천수천안, 2012, p 118~130

조지훈 문학관, <http://jihun.yyg.go.kr/>

6조 - 김시습

1. 김시습의 생애

20131114 박상우

김시습은 1435년 하급관리였던 강릉 김운의 김일성과 같은 강릉 출신 어머니 선사 장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세종 19년 때인 1437년 3살 때부터 외할아버지로부터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여 「정속」, 「유학자설」, 「소학」을 배운 후 5세 때 이미 시를 지을 줄 알아 신동이라는 소문으로 왕인 세종한테까지 알려질 정도였다. 세종은 그가 크게 될 재목이니 선물을 내렸다고 하여 ‘오세’라는 별호를 하사해 주었다.

세종 29년 13살의 김시습은 이웃집의 성균관대사성 김반(金泮)에게서 「맹자」, 「시경」, 「서경」을 배웠고, 겸사성 윤상에게서 「주역」·「예기」를 배웠으며, 여러 역사책과 제자백가는 스스로 공부할 정도로 학문에 대한 열의가 높았다. 그는 1449년에 어머니 장씨를 여의고 15세의 나이로 외가의 농장 곁에 있는 어머니의 무덤 옆에서 3년상을 치렀다. 그러나 3년상이 끝나기도 전에 그를 어머니처럼 돌보아 주던 외숙모가 별세하였고, 당시 아버지는 계모를 맞아들였으나 병을 앓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무렵 그는 혼인하였으나 원만한 가정이 되지 못하였다. 어머니의 죽음은 인간의 무상함을 깨닫게 되었고, 18세에 송광사에서 선정에 드는 불교입문을 하였다. 그 후 삼각산 중흥사로 들어가 공부를 계속하였다.

세조 1년이 되던 해인 1455년 21살에는 수양대군의 왕위찬탈 소식을 듣고, 3일간 통곡하고 보던 책들을 모조리 불태운 뒤에 스스로 승려가 되어 전국 각지를 유랑하였다. 사육신이 거리에서 거열형에 처해지자 시신을 바랑에 담아다가 노량진 가에 임시 매장한 사람이 김시습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후 그는 관서지방을 유람하며 많은 시를 지었다.

세조 6년 때인 1460년 26세가 되던 해 그는 관동지방을 유람하여 지은 시를 모아 「탕유관동록」을 엮었고, 29세인 1463년(세조 9) 때에는 호남지방을 유람하여 「탕유호남록」을 엮었다. 세조 11년 때인 1465년 31세가 되던 해 경주로 내려가 경주의 남산인 금오산에 금오산실을 짓고 칩거하였다. 이때 김시습은 ‘매월당’이란 호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는 37세까지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로 불리는 「금오신화」를 비롯한 수많은 시편들을 「유금오록」에 남겼다. 성종 12년 때인 47세의 나이에 돌연 머리를 기르고 고기를 먹으며, 안씨를 아내로 맞아들여 환속하는 듯하였으나, 이듬해 ‘폐비윤씨사건’이 일어나자, 다시 관동지방으로 방랑의 길에 나섰다.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강릉·양양·설악 등지를 두루 여행하였다고 전해진다. 「관동일록」에 있는 100여 편의 시들은 이 기간에 쓰였다고 한다.

10대에는 학업에 전념하였고, 20대에 산천과 벗하며 천하를 돌아다녔으며, 30대에는 고독한 영혼을 이끌고 정사수도로 인생의 터전을 닦았고, 40대에는 더럽고 가증스러운 현실을 냉철히 비판하고 행동으로 항거하다가 50대에 이르러서는 초연히 낡은 허울을 벗어 버리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찾아든 곳이 충청도 홍산 무량사였다. 그리고 그는 이곳에서 1493년(성종 24) 59세의 나이로 병사하였다.

출처 : 심경호, 「김시습 평전-시대의 비판자」, 돌베개, 2003, P.600~605

2. 관련 유적지

20131144 홍종현



김시습의 생가

김시습의 생가는 강릉에 자리 잡고 있다. 그는 1435년에 강릉 본가에서 태어났고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잃고 한성으로 올라왔지만 수양대군이 단종을 내 쫓은 소식을 듣고 실망하여 삼각산 중흥사로 들어가 중이 되었다. 그 후에 김시습은 경주 금오산 용장사에서 기거하며 「금오신화」를 집필한다.



용장사곡 삼층석탑

수양대군이 단종을 죽인 것에 대한 실망으로 김시습은 한성에서 경주 금오산으로 간다. 경주 금오산의 용장사는 현재 절터만 남아있으며 용장사곡 삼층석탑만이 그 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대신하고 있다.



충청도 홍산 무량사

김시습은 한성에 다시 와서 장가를 들어 환속했으나 아내가 죽은 후 또다시 방랑길에 올랐다. 그렇게 그는 충청도 홍산에 있는 무량사에서 글을 쓰며 남은여생을 보냈다.



김시습은 충남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1493년에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일생을 방랑과 글쓰기로 보낸 김시습은 충남 부여군 외사면 만수리에 잠들었다. 그가 승려였던 점을 감안하여 그의 묘지는 불교식 묘지였는데 일제강점기 때 태풍에 쓰러진 부도탑에서 사리가 나왔다고 전해진다.

충남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김시습의 묘

출처: 박성수, 한국의 역사-세종대왕과 훈민정음, 금성출판사, 1994, 네이버 백과사전

3.대표 작품

20131110김은지

김시습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한문 단편 소설집인 「금오신화」와 일종의 경전인 「화엄석제」, 그리고 시문집인 「매월당집」을 꼽을 수 있다. 「금오신화」의 확실한 창작 시기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아마도 김시습이 관서, 관동, 호남지방을 여행한 뒤에 금오산에 정착했을 때 구상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오신화」는 지역별로 설화를 정착시켜가던 고려 시대의 서사문학적 전통 속에서 창작 되었으며, 그 당시 명나라 구유의 「전등신화」가 국내에서 유행하였는데 김시습이 이 「전등신화」에서 착상을 얻어 「금오신화」를 창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오신화」는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정기>, <남염부주지>, <용궁부연록>의 다섯 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작품은 모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시대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만복사저포기>는 고려 말 왜적의 침략을, <이생규장전>은 흉건적의 난을 배경으로 하여 외적의 침략으로 인한 민족의 아픔을 그려냈다. <취유부벽정기>는 옛 도읍 평양을 배경으로 하여 민족사의 흐름이 그 풍경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남염부주지>는 조선 초기 유행하였던 지옥의 관념을 주제로 하여 올바르게 못난 이념만이 들끓는 현실의 악(惡)을 비판하였으며, <용궁부연록>은 개성의 박연 폭포에 산다는 용 전설을 인용하여 모든 고통이 사라진 환상 속 공간에 대한 바람을 나타냈다.

다섯 이야기는 모두 단편소설만의 정교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염부주지>를 제외한 네 작품은 모두 작품에 시를 삽입하여 사건의 흐름을 암시하며 인간의 심리와 당대의 문학적 분위기를 독특한 방식으로 나타내었다. 특히 <만복사저포기>에서 여러 여인이 각자의 심리를 각기 다른 시풍 속에 담아낸 것은 문학적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김시습은 비현실적인 소재와 더불어 기이한 상상을 글로 표현했으며, 그 상상을 통해 민중들이 겪는 실상과 그 의미를 솔직하게 보여주었다.

김시습은 화엄 사상과 선사상을 결합하여 「화엄석제」를 지었는데, 이 역시 창작시기는 분명하게 밝혀지진 않았으나 아마 「대화엄일승법계도주병서」를 지을 무렵에 화엄과 선을 결합시키는 문제를 진지하게 탐구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취지의 글인 「화엄석제」를 지었으리라 추정하고 있다.

김시습은 「화엄석제」에서 80화엄의 대의에 관하여, 최초의 11권은 중생을 위해 개발한 신문, 그다음 41권은 중생을 위해 개발한 해문, 그다음 7권은 중생을 위해 개발한 행문, 그다음 21권은 중생을 위해 개발한 증문 이라고 명료하게 설명하였다.

선조의 명으로 간행된 김시습의 시문집인 「매월당집」은 총 23권인데 그 중 15권이 시집이며, 수록된 시는 무려 2,200여 수에 달할 정도로 김시습은 어린 시절부터 시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 김시습의 시는 자신이 평정을 얻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꾸미려는 태도가 전혀 없기에 직설적이며, 그의 한이 담긴 독백과 오열이 많기에 굉장히 매혹적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매월당집」에는 김시습의 사상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데, 유교적인 정치적 이념에 불교의식을 담은 그의 유불공존적인 입장은 그가 유불선에 있어서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 심경호, 김시습 평전, 돌베개, 1979, p11, p269-271, p387

4. 문학사적의의

20131129 이민정

김시습의 호는 ‘매월 당’이다. 신동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라며 세종의 눈에 들었던 그는 장차 장성하여 임금께 충성하겠다고 다짐 하지만 21세 때 단종의 손위사건을 들은 김시습은 실의와 좌절에 빠지게 된다. 그날 이후로 그는 모든 책을 다 불태우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방랑하고 기구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 산속에서 생활하면서 신분을 속이기 위해 호를 ‘설잠’으로 바꾸고 세상을 조롱하며 미친 척하고 살았다. 이렇게 김시습은 세조의 권력집권을 반대하면서 어떠한 직접적인 불만을 표현할 수 없었지만, 소설을 통해 그 시대의 모습을 우회적, 풍자적으로나마 표현한 진정한 충신이었다.

또한 김시습은 여러 작품들을 지음으로써 민중들에게 힘이 되고 우호적이며 민중들의 편에 서있는 긍정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여러 산을 방랑하면서도 많은 문학작품을 지었는데 그중에서도 김시습의 인생관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금오신화」가 대표적이다.

「금오신화」의 문학사적의 의의 핵심은 그 당시 시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였다는 것과 역사상 최초의 소설이라는 점이다. 설화가 소설로 발전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이후 소설에 많은 영향을 끼치도록 해준 것이 바로 「금오신화」이다. 「금호신화」는 기이한 이야기를 창의적으로 재구성한 전기소설이라는 면이 특징인데 그래서 그런지 소설 속의 인물들이 대개 영혼이거나 선녀가 대부분이다. 그 당시 몇 편이 쓰였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정기, 남염부주지, 용궁부연록 총 5편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는 이 5편의 작품에서 시를 넣어 활용함으로써 사람들의 심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작품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세상에 대한 김시습의 불평불만을 은밀하게 표현할 수 있던 수단이었다. 「금오신화」의 첫 번째 이야기 『만복사저포기』에서는 생사를 초월한 남녀의 애정문제를 다뤘는데, 죽은 여인의 혼이 나타나서 남자를 사랑하며 받들겠다고 약속하는 부분은 김시습 자신이 세종에게서 받은 은총을 영원히 잊지 않고 끝까지 보답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이생규장전』에서는 아내가 죽으면서까지 끝까지 정조를 지키는 모습을 통해 김시습이 당시에 세조정권을 따르지 않고 단종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나타낸 작품이다. 세 번째 『취유부벽정기』는 실제 무대가 우리나라 옛 도읍 평양이었다. 내용 중 나라를 빼앗긴 부분은 세조가 정권 탈취한 것을 은연중에 말한 것이고, 선녀가 조상의 도움으로 서생과 함께 다시 천상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부분에서는 단종의 모습이 담겨있다.. 네 번째 『남염부주지』는 그 당시 세조의 정권을 비판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 속에서 죄인을 심판하는 역할인 염라왕이 되는 주인공 서생은 김시습 자신이 그러한 세력을 처단하고 싶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용궁부연록』에 나오는 인물 서생은 김시습 자신이고, 용왕은 세종을 나타낸다.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서생이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사는 장면은 세조가 집권 후 속세를 떨치고 산에 들어가 살았던 자신의 실제모습을 묘사한 작품이다.

출처 : 김시습/이 재호 옮김, 「금오신화」, 을유문화사, 1994, p195-210

이문구, 「매월 당 김 시습」, 랜덤하우스중앙, 2005, p420-428

심경호, 「김시습평전」, 돌베개, 2003, p269-276

7조 - 김동리

1. 생애

20131130 이수진

김동리는 1913년 신라문화와 화랑정신이 꽃피었던 경북 경주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시종이며 훗날 필명을 김동리로 작가활동을 한다. 그는 어릴 적 동무들의 죽음을 겪고 아버지의 지나친 음주와 어머니와의 가정불화로 외로운 유년시절을 보냈다. 이는 그에게 언제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였다. 이러한 그의 유년시절 경험이 반영되어 대표작 <늬>과 <무녀도>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가 작가로서 명성을 떨치게 된 것은 1935년 5월 4일자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화랑의 후예> 이후이다. 그 후에 다술사와 해인사에 머무르며 작품을 썼다. 그 작품은 <산화>로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서 당선되며 문학사에서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37년에 다술사 근처 마을에 '사설 학술강습소'를 열어 고장 사람들에게 한글과 산수, 일본어를 가르쳐주는 등 문학 활동뿐 아니라 문명되 치운동에도 힘썼다.

8·15 광복 직후엔 민족주의 문학 진영에 가담하여 좌익세력과 맞서서 우익 측을 옹호하며 문학 활동가와 더불어 평론가로도 활약했다. 그는 친구 서정주, 박목월, 조지훈 등과 함께 '조선청년문학가협회'를 조직하였고 초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또한, 1947년부터 1948년까지 일 년간 경향신문과 민국일보의 임원으로 언론계에서도 꾸준한 활약을 했다. 1953년부터 신문사나 잡지사 일은 그만두고 서라벌 예술대학에서 후진들을 양성하며 창작활동에만 전념했다. 그 이후로 여러 작품을 발표하며 후진양성을 위해 '월간문학'과 '한국문학'을 창간하며 문학계의 지도자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그는 1990년 7월 30일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1995년 6월 17일에 생을 마감했다.

1992년 김동리는 중편소설 <을화>로 노벨문학상 최종심의를 오르면서 사후에도 한국 문학의 명성을 높였다. 이는 그의 소설이 가장 한국적이며 세계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김동리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문학상으로 동리문학상이 있다. 1998년 이래로 매년 11월 24일에 열리며 뛰어난 작가들을 많이 배출해내고 있다.

이처럼 김동리는 근현대를 살아온 역사의 산물이다. 또한, 한국의 대표적인 소설가이자 시인이다. 그는 문학 내용적으로는 자연 친화를 추구했으며, 정치적으로는 우익적 민족주의의 이념을 내세웠고, 정신적으로는 민족의 정체성을 외쳤던 인물이다. 그는 한국 고유의 토속적인 면을 현대적 소설 미학으로 수용하여 민족 문학의 전통을 정립하고 확대했다. 이런 면에서 그는 민족문학과 순수문학 차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의 대표작으로 시집 <바위>, 소설 <무녀도> <사반의 십자가> <역마> 등이 있다.

참고문헌: 이재선, 「김동리」, 서강대학교출판부, 1936년, p262~297

네이버 캐스트 김동리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ca123&contents_id=6897&tegrory_type=series

네이버 백과사전 김동리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0&docId=1209465&mobile&categoryId=200000336>

2. 업적

20131116 박정현

김동리는 해방공간에서 좌우익의 대립과 혼란 속에 좌익계 문학단체인 '문학가동맹'에 맞서 민족진영의 문학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우익계 단체인 '한국청년문학가협회'를 결성하고, 1946년 초대 회장에 당선되었다. 1947년부터 1948년까지 또다시 순수문학 논쟁을 벌이며, <순수문학의 진의(眞義)> (서울신문, 1946.9.14.)를 계기로 다수의 평론을 발표하며 김병규(金秉達)·김동석(金東錫) 등의 좌파 이론가와 맞서서 논쟁을 벌인다.

한편 소설작품에서도 우파의 정치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작품을 발표한다. 좌파 이론가와 논쟁을 벌인 그는 '본격문학'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좌파 계급주의 민족문학론에 대항하여 인간주의 문학론을 제창한다.

그는 '본격문학=순수문학=민족문학'이란 문학적 이념 아래 왕성한 창작 활동을 보였다. 그의 문학관 및 세계관의 중심을 이루는 이론으로서 오늘날까지도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는 한국 소설사에서 토착적이고 민족적인 소재를 '생(生)의 구경적(究竟的) 탐구'로써 형상화하여 민족문학의 전통을 정립하고 확대시킨 작가이다.

그리고 김동리는 서양의 사상에 대응되는 것으로 한국적인 신과 인간을 추구하던 과정에서 샤머니즘을 찾게 되고 그 구체적인 실천으로 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이처럼 식민지 억압 상황에서 창작활동을 시작하던 동리는 민족 해방, 즉 탈제국주의의 일념하에서 동양의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여 많은 토속적인 작품을 창작해 온 초기의 특성을 말기에 이르기까지 다시 모색해 보고 재정립하게 되는 것이다.

작가 김동리에게 문제는 제국주의 침탈의 상대가 일본에서 서양(미국)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 민족은 여전히 외세에 의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제국주의나 식민주의가 팽배해 있는 시대도 아니며 우리나라는 엄연히 독립국이므로 이런 문제는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각심조차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이르러 있는 오늘날의 우리의 본모습을 한번 돌아볼 때 서양식 사고에 깊이 물들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작가 김동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던졌던 물음들이 지금 이 시점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다각적 업적에 따라 그는 아세아자유문학상(自由文學賞)(55), 예술원상(藝術院賞)(58), 3·1 문화상 본상(67), 서울시 문화상(70) 등을 받았고, 1968년에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참고문헌: 김정숙, 「김동리 삶과 문학」, 집문당, 1996년, 273~279p.

네이버 지식백과, 김동리 삶과 문학<http://terms.naver.com/entry.nhn?cid=958&docId=688751&mobile&categoryId=1992>

3. 대표 작품

20131112 김한별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우수 경칩도 다 지나 청명 무렵의 비가 절금거릴 즈음이었다. 주막 앞에 늘어선 버들가지는 다시 실갈이 푸르러지고, 살구, 복숭아, 진달래들이 골목 사이로 산기슭으로 울긋불긋 피고 지고 하는 날이었다.

아들의 미음상을 차려들고 들어온 옥화는 성기가 미음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자, 이렇게 물었다.

"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보고 싶나?"

"....."

성기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냐?"

"....."

성기는 역시 고개를 돌렸다.

(중략)

아버지를 찾아 강원도 쪽으로 가볼 생각도 없다, 집에서 장가들어 살림을 할 생각도 없다, 하는 아들에게 그러나, 옥화는 이제 전과 같이 고지식한 미련을 두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 어쩔라냐? 너 졸 대로 해라."

"....."

성기는 아무런 말도 없이 도로 자리에 드러누워 버렸다.

그리고 나서 한 달포나 넘어 지난 뒤였다.

성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이 화갯골에서 연달아 자꾸 내려오는 이른 여름의 어느 장날 아침이었다. 두릅회에 막걸리 한 사발을 쭉 들이키고 난 성기는 옥화더러,

"어머니 나 엿판 하나만 맞춰 주." 하였다.

"... .."

옥화는 갑자기 무엇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 성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김동리의 대표작품 중 하나를 뽑자면 <역마>를 들 수 있습니다. 역마는 한곳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못하고 이곳저곳 방황하며 떠돌아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목의 뜻처럼 소설의 내용 또한 역마살이 낀 한 남자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화개장터에서 주모 하던 옥화는 떠돌이 종과 정을 나누고 주인공인 성기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세 살이 되었을 때 사주를 보자 성기에게 역마살이 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옥화는 어떻게든 성기의 역마살을 막아보려 애쓰지만, 역지로 운명을 거스른 대가는 큰 병으로 다가와 성기의 목숨을 위태롭게 합니다. 결국, 옥화는 성기의 역마살을 인정하고 간신히 병을 이겨낸 성기가 멀리 떠나 방랑의 삶을 살게 되면서 소설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처럼 김동리는 인간과 자연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자주 그려냈는데 <역마>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차리리 몰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번 알고 나서야 인륜이 있는디 어찌겠냐."라는 문장을 보면 '인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인간과 자연사이의 운명에 관해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등을 통해 작가가 운명론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쩔라냐? 너 졸 대로 해라." 또한, 이 구절을 보면 과거에는 부정했던 성기의 역마살을 인정하면서 처한 운명에 대해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가는 인간과 자연사이의 운명 관계에 대해 중시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방언 등의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토속적인 내용의 소설들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역마, 밀다윈시대, 「김동리전집2」, 민음사, 1995

4. 문학사적 평가

20121110 김유미

김동리가 태어난 지역인 경주는 고조선 이후 무속적 분위기에, 통일 신라의 불교가 접목되어 형성된 독특한 정신적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원천적 민족정신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 경주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김동리가 자라던 때, 경주는 신라 고도의 옛 분위기가 훼손되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토속적, 무속적 분위기가 짙게 감도는 경주의 분위기는 어린 시절 김동리의 내면적 정서의 기초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리가 작품을 통해 신라문화와 신라혼에 대해 깊이 다루었던 것은 자신이 태어난 고장 경주가 한국 혼을 상징하는 공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동리의 작품경향은 한국적인 삶의 전통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김동리 작품들에서 그러한 특성이 많이 드러나 있으며, 종교적 삶과 세속적 삶의 내재적 모순과 그 초월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김동리의 대표작품인 하나인 단편 「무녀도」에는 객지에서 살다 온 아들 욱이가, 그 어머니인 무녀 모화의 토속적 신앙과는 다른 기독교 신도가 되어 집에 나타납니다. 이들 모자는 사사로운 가족 간의 정의의 문제보다 근원적인 신앙의 차이에 의한 갈등으로 아들 욱이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마지막 곳에서 스스로 자결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무당 모화의 묘사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아니 미zum에 빠진 여인으로서 다른 종교나 가치론에는 거의 무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대 변이추세에 무지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화는 시대의 변화와 무관하게 오직 무녀로서 토속적 신앙세계에 함몰된 인물임을 알려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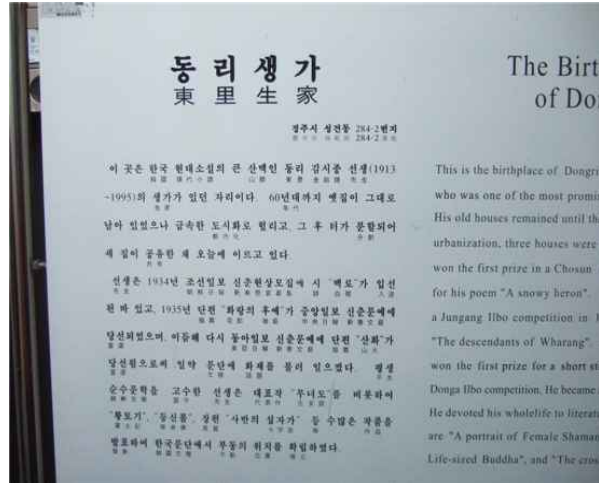
김동리는 6.25전쟁을 체험하며 현실문제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는 “문충구국대”를 조직하고 활동하게 됩니다. 작품 「등신불」에서는 주인공 만적이 그의 어머니의 사랑, 형제간의 우애라는 세속적 인연의 위험에서 벗어난 고뇌를 치른 연후에 비로소 그러한 불법의 완성이 이루어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즉 애초부터 대보살의 심성을 지니고 이룬 부처가 아니고, 아주 평범한 한 가적의 비극을 겪으면서 차츰 자각에 이르며 그런 연후에 대결단을 통하여 보살도에 드는 그 과정에서 김동리 문학의 인간주의의 구현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김동리의 초기 작품에서는 토속적인 신앙생활과 토속적인 삶을 설화를 배경으로, 폐쇄적 고립의 인간과 무의미한 겨울의 인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25 현실을 직시하여, 보통 사람들의 시련과 수난상을 통하여 그 심성에 깃든 깊은 인간애의 정신을 조명하여 김동리의 인간주의 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김동리는 우리 문학사에서 한국적인 인간상을 형상화한 대표적인 작가로서 높이 평가받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참고문헌: 신동욱, 「무녀도」, 소담출판사, 1995, p338-377

<http://www.dmgyeongju.com/>

5. 관련 장소



-김동리 생가

경북 경주시 성건동 284-2번지에 남아있는 김동리 생가 터다. 생가는 60년대 급속한 도시화 때문에 집이 헐렸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 집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고, 벽면에 이곳이 김동리 선생의 생가였던 곳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동리 문학관

경북 경주시 진현동 550-1 동리 목월 문학관에 있다. 경주시와 동리·목월기념사업회가 중심이 되어 2006년 3월 24일에 건립한 동리·목월문학관은 다양한 프로그램 및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다. 김동리문학제를 개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금으로 시상식을 하며, 김동리문학상 기금도 모은다.

사진 출처

<http://blog.naver.com/yakbarri?Redirect=Log&logNo=50036839877>

<http://cafe.naver.com/loveyeji/3149>

8조 - 박목월

1. 생애

20131113 문소윤

시인 박목월의 본명은 영종이고 1916년 1월 6일 경북 월성군(현 경주시)에서 2남 2녀 중 맏아들로 태어났다. 목월은 엄격한 부친과 자상한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다.

목월은 조부에 의해 1923년 4월 경주군에 있는 건천 보통학교에 입학한다. 소년 목월은 어릴 적부터 상상력이 풍부했다. 1929년 3월 보통학교를 졸업 후 1930년 4월 어머니의 영향으로 대구에 있는 미션계의 중학인 계성학교에 입학한다. 그는 중학생의 신분으로 이미 동요시인으로 등단한 특별한 학생이었다. 목월은 16세가 되던 1932년 중학교 3학년 때, 아동잡지 <아이생활>에 동요를 투고하였고, 1933년 봄 <어린이>에 [통딱딱 통딱딱]이라는 동시를 처음 발표하였으며, 그 해 6월 <신가정>에 [제비맞이]가 현상 당선되면서 정식 동요 시인으로 등단하였다.

19세가 되던 1935년 3월에 목월은 계성학교를 졸업한 후 5월에 경주의 동부금융조합 서기로 취직한다. 1934년 겨울 방학 때 동향의 선배인 김동리를 만나 친교를 나누기 시작하였다. 김동리는 목월에게 외로움을 달래주는 문우인 동시에, 문학적 열정을 자극하는 경쟁자이기도 하였다. 그런 와중에 목월은 선을 본 후 1938년 5월 20일 유익순여사와 결혼을 하였다. 목월은 가난하지만 안정된 생활 속에서 더욱 열심히 책을 읽고 글을 썼는데 이 무렵에 목월은 동시뿐만 아니라 성인시에도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1939년 2월에 창간된 [문장]의 출현이 그 계기이다.

성인 시인으로 추천을 완료하기 전, 목월은 1940년 두 달간 동경 유학을 떠나게 된다. 귀국 후 한 달 동안의 동해안 도보 여행에서의 자연에 대한 체험은 목월 시의 한 중요한 자양분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문장] 지 추천을 완료하던 9월에 금융조합에 복직한다.

1945년 8월 그토록 갈망하던 해방의 순간 목월은 김동리의 권유로 우익 단체인 청년문학가협의회에 가입하면서 조지훈, 박두진 등과 교류를 나눈다. 1946년 6월 6일 세 사람은 '자연 지향'이라는 공통적인 시 세계를 추구하며 [청록집]이라는 시집을 발표한다.

1962년, 목월은 한양대 국문과 교수로 임용된다. 또한, 1968년 2월 한국시인협회에 회장에 취임하여 가난한 후배 시인들의 시집을 발간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여 1969년부터 1971년에 걸쳐 30여 권의 시집으로 결실을 맺는다.

목월의 나이 48세 때 상재된 시집 [청담]부터 목월의 시 세계는 '생활 감정에 밀착되면서 시를 통해 인간의 지혜로운 세계를 탐구'하는 것으로 전환한다. 목월은 50대인 1973년 초봄 한국시의 전체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 시 전문지를 만들기로 결심한 후 10월 시 전문지 [심상]을 창간한다. 목월은 그 후에도 꾸준히 시를 써 나이 60세가 되던 1976년 시집 [무순]을 발간한다.

목월은 시를 통해 삶의 희로애락을 극복할 정도로 목월에게 시는 삶 자체였다.

1978년 3월 24일, 목월은 평소처럼 새벽 산책에서 돌아온 뒤 가벼운 어지럼증을 느껴 자리에 누웠다. 그리고는 편안한 모습으로 영원히 잠들었다. 목월이 떠난 이듬해인 1979년, 미망인 유익순 여사와 장남 박동규 교수에 의해 유고시집 [크고 부드러운 손]이 간행되었다.

참고문헌: 박현수, 박목월, 「새미 작가론총서」, 2002년, P.9-23

2. 주요 작품

20131118 박 현

산

박목월

건천은 고향
역에 내리자,
눈길이 산으로 먼저 간다.
아버님과
아우님이
잠드는 선산.

거리에는
아는 집보다 모르는 집이 더 많고
간혹 낮익은 얼굴은
너무 높았다
우리 집 감나무는
몰라보게 컸고

친구의 손자가
할아버지의 심부름을 전한다.

눈에 익은 것은
아버님이 거쳐하시던 방.
아우님이 걸터앉던 마루
내일은
어머니를 모시고 성묘를 가야겠다.
종일 눈길이
그 쪽으로만 가는 산
누구의 얼굴보다 친한
그 산에 구름
그 산을 적시는 구름 그림자.

박목월의 시 ‘산’은 화자가 오랫동안 찾지 못한 고향에 찾아가 변해버린 고향에 대해 느끼는 쓸쓸함과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이다.

화자가 역에서 내려 가장 먼저 바라본 것은 산. 바로 ‘아버님과 아우님이 잠드는 선산’이다. 여기서 화자의 아버지와 아우가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화자가 그들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를 모시고 성묘를 가야겠다.’라는 구절을 보면 그런 산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오랜만에 찾았지만 많은 것이 이미 변해버린 고향, 그리고 그 와중에 변치 않은 것이 바로 ‘산’.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한 이 산은 1연에서 알 수 있듯 아버지와 아우가 묻힌 선산이다. 화자는 산은 물론 아버지와 아우가 지내던 방과 마루도 변치 않았다는 데에 익숙함을 느낀다. 그리고 눈길을 자꾸만 주고, 어머니와 성묘를 하러 갈 결심을 한다. 또한 마지막 구절에서도 누구의 얼굴보다 친한 것이 그 산의 구름과 그 그림자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화자는 산의 모습에서 자신이 그리워하던 고향의 향수와 쓸쓸하던 감정에 대한 위로를 동시에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든 것이 변한 고향의 모습에서 다른 모습들과는 달리 변치 않고 익숙한 것이 아버지와 아우의 죽음에 관련된 것들이라는 것이, 화자가 느꼈던 향수와 위로와는 또 다른 한편으로 너무나도 슬픈 상황이라고도 생각한다.

참고문헌: 박현수, 박목월, 「새미 작가론총서」, 2002년

3. 작품세계

20131132 이 지연

초기의 박목월은 1946년 청록집을 통해 청록파 또는 자연파로 불렸다. 이 시절의 박목월은 시에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을 노래했다. 많은 사람이 자연을 노래하는 시를 쓰곤 하지만 목월은 현실이 아닌 상상 속에서 만든 자연을 노래했기 때문에 인상적이고 독특한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자연이 인간과 현실과 관련이 없다고 해서 그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목월의 자연은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로 피폐해진 현실과 대비되면서 우리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이전의 현실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느끼게 해준다. 때문에 박목월의 자연은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이런 자연은 우리에게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아름다움의 공간을 열어주었다.

박목월이 청록집을 낸 1946년은 1910년 시작되었던 일제강점기가 1945년을 끝으로 막을 내리고 난 후였다. 일본의 강압적인 식민지 통치로 때문에 한국의 문화는 메말라 있었고 특히 일제 말기에 일본은 한국의 병참 기지화 정책을 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어 과목 폐지, 조선어학회와 진단학회해산, 우리말 신문 폐간, 그 밖에도 신사참배·창씨개명을 강요하는 등 국어말살정치와 함께 민족문화를 말살하려 했었다.

그러한 시기에 그는 우리말로써 한국인의 전통적인 삶의 의식을 담은 향토적 서정을 시에 담았다. 이를 통해 박목월은 한국인에게 민족성을 일깨우고 우리의 정신을 통합하였다.

박목월의 시 세계가 바뀐 것은 6·25전쟁 후에 1959년 시집 난·기타를 발간하고부터였다. 그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응시하는 내면적인 성향이 짙은 새로운 시 세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인간 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진 신비한 미학의 세계로부터 자신의 일상적인 세계로의 이행을 보여준다. 그의 압축적이고 생략적인 언어는 평이하고 일상적인 언어로 변했고 시의 내용도 일상 체험에 근거한 상념의 내용이었다.

박목월이 말년에 추구한 시 세계는 꾸민 곳 없이 수수한 향토성의 미학이었다. 이것은 시인이 지향했던 삶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이다. 그는 평범한 시골 사람들의 삶에 주목하여 별다른 욕심 없이 주어진 삶에 순응하여 사는 것을 추구했다. 그는 고단한 삶, 실망스러운 삶에 겸허하게 복종하고 절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것은 소중한 가치를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어렵게 절제하며 소중한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이다.

또 그의 시적 경향이 종교적이고 철학적이며 구조적인 것을 그의 종교시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는 노년에 접어들어 죽음에 대해서 보다 빈번하게 생각하고 신에게 더 많이 의지하였던 것 같다.

지금까지 그의 삶과 함께 본 그의 시 세계를 짚어보자. 초기에는 독창적인 자연의 미학으로 우리 문학에 새로운 영향을 불어 넣어주었고 한국 문학의 새로운 면을 열어 주었다. 중기에는 한 서정적 인간의 일상과 내면의 진실을 서술함으로써 섬세하고 서정적인 면을 보여주었다. 말기에는 죽음에 가까운 인간의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진술을 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 박목월 이남호, 「박목월 시 전집」, 민음사, P.921~p951

네이버캐스트,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4. 박목월 문학사적 평가

20121118 박은지

목월은 흔히 자연 시인이라고 불린다. 그의 자연물은 흔히 추상적인 물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의 초기 시를 ‘심혼의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이에 속한다. 순한 동물들과 환상적 기법은 초기 시의 자연을 설정하는데 바탕이 되고 있다. 후기 시에서의 자연은 때 묻지 않은 자연을 삶의 지표로 삼았기에, 수수한 인간의 본향과 같은 자연으로 바뀌었다.

어머니는 목월 시에서 삶과 영혼의 좌표이고, 부활 의지를 발견하게 해주는 모체이다. 『난·기타』 이전에는 어머니가 그리움이 담긴 동심으로 나타났지만, 『난·기타』 후에는 생활의 지혜와 영혼적 삶의 안 내가의 성격이 더 주를 이루고 있다. 목월의 향수는 어린 시절 경험과 관계가 있다. 이 경험이 어머니로부터 충족되기 때문에 향수는 동심, 모성과 관계가 깊고, 이런 보편성이 목월 시의 특징을 이루게 된다.

목월 시는 슬픈 느낌의 소월과는 달리 부드럽고 밝은 분위기를 띤다. 그 이유는 목월은 동심에서 소재, 주제에 원인을 두기 때문이다. 초기 시에서는 속세를 떠나 이상의 자연을 설정하여, 항상 미래로 나아가려는 의지는 인내와 긍정의 삶이기도 하다. 높은 삶,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성격의 화자가 또한 시를 밝게 만든다. 목월의 시가 밝다는 것은 현대 시에 있는 감상성, 퇴폐성을 지양하는 것이 되고, 이것은 전통에 대한 변혁이 될 수 있다. 시사적은 측면에서 목월의 시는 전통성과 시어의 계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목월은 일제 치하에서 그는 단 한 편의 친일 문장도 남기지 않는 작가다. 저항성의 소극적 적극적 개념을 떠나서, 동시와 시를 통해 우리말과 정서를 함양하는 데 기여한 점은 문화적 측면에서 뚜렷한 공적으로 평가 될 것이다.

목월은 식민지 시대에는 역사의식보다는 언어를 통해 민족애를 보여주었고, 해방 이후에는 민족 주체성과 언어와의 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였다.

참고문헌: 이탄, 「박목월」, 건국대학교출판부, 1997, P.113~119

5. 박목월의 유적지

20121111 김윤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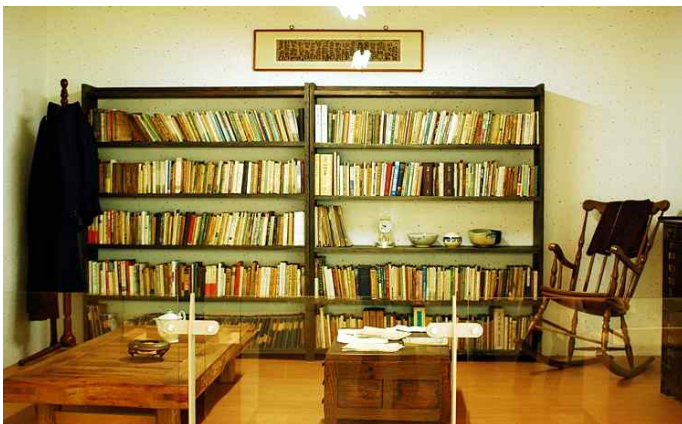
1. 경주 모량마을 박목월선생의 생가 터



경주 모량마을에 있는 박목월 선생의 생가는 1980년대까지 남아 있다가 헐리고, 이제는 박목월 선생과는 무관한 다른 집이 들어서 있다. 실상 생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 집의 입구에는 목월생가라는 안내판이 붙어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이곳은 청록파의 한 분으로 한국 시단에 불멸의 발자취를 남긴 목월 박영종(1916~1978) 선생의 생가가 있던 자리이다. 80년대까지 옛집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나 애석하게도 헐리고 지금 있는 건물은 그 자리에 다시 지은 것이다.”

2. 동리목월 문학관



우리가 답사 때 박목월 선생에 대해 관찰할 동리목월 문학관에는 살아생전 시인 박목월 선생의 서재를 재현 해 놓은 방이 마련되어있다. 그 밖에도 그의 저서와 유품 등이 전시되어있어 많은 탐구거리를 제공한다. 이곳에서는 동리 · 목월 선생의 문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사도 진행되는데 먼저 동리·목월 문학제(음악회, 문학심포지엄, 백일장, 동요경연대회, 저서시화전 등)를 개최하고, 동리·목월 문예창작대학을 운영하며 비상설 프로그램으로 각종 문학심

포지엄, 시낭송회도 개최한다. 생가가 헐려 목월 선생의 생전 삶의 흔적을 좀 더 느끼지 못해 아쉬운 부분들을 동리목월 문학관이 채워준다.

3. 경주 황성 공원

경주 황성 공원에 가면 시인 박목월 선생의 초기 동시 ‘얼룩 송아지’가 새겨진 노래비가 오세재와 김동리의 문학비와 함께 그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노래비는 1968년에 세워졌다. 경주문인협회는 매년 봄이면 노래비 앞에서 ‘목월백일장’을 개최한다고 한다.

사진 출처 : rubygarden.tistory.com , monthly.chosun.com , blog.daum.net 한국 문학관협회, 사랑이 꽃피는

9조 - 현진건

1. 생애

20131133 이지원

현진건(玄鎭健, 1900.08.09~1943.04.25)의 호는 빙허(憑虛)이다. 여기서 빙(憑)은 의탁(依託)을 허(虛)는 무(無)를 의미한다. 즉 '허공(虛空)에 의지한다'는 뜻으로 이는 현진건의 심경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었고, 고대 중국 송(宋)의 문인 소식(蘇軾)의 《적벽부(赤壁賦)》의 구절 가운데 "넓기도 하구나, 허공에 의지하여 바람을 타고서(浩浩乎! 憑虛御風而)..."란 구절에서 느낀 바가 있어 그대로 '빙허'를 아호로 정하였다고 한다. 그는 1900년 음력 8월 9일 경북 대구에서 대한 제국의 우체국장인 아버지 현경운과 어머니 이정효의 막내로 출생하였다. 1912년 일본 동경 성성중학교에 입학하여 1917년 졸업을 하였고 이상화, 이상백, 백기만 등과 함께 동인지 〈거화(巨火)〉를 발간하였다. 또한, 1918년 둘째 형 정건(鼎健)을 찾아가 중국 상해 호강대학 독일어 전문부 입학하였고, 1919년 상해에서 귀국. 육군 영관을 지낸 당숙 현보운에게 입양되었다.

1920년 현진건은 처녀작 단편 《희생화》를 개벽에 발표하며 문단에 등장하였다. 이어서 1921년에 단편 《빈처》를 발표함으로써 입지를 다졌고 이 무렵 홍사용, 박종화, 나도향, 박영희 등과 함께 〈백조〉동인에 참가하였다. 작가의 자전적 요소가 많은 작품인 단편 《술 권하는 사회》, 1922년 중편 《타락자》를 발표하였고 단편 《유린》, 단편 《피아노》를 발표하였다. 이 해에 현진건은 이상화를 〈백조〉동인으로 추천하고 시대일보로 기자직을 옮기었다.

1923년 그는 육당 최남선 주재의 〈동명〉편집동인이 되었고 이 무렵 단편 《우편국에서》(동아일보), 단편 《지새는 안개》, 단편 《할머니의 죽음》(〈백조〉 3호) 등을 연재하였다. 또한 1924년에는 사실주의 단편 소설 《운수 좋은 날》을 발표하였고, 1925년 단편 《불》, 단편 《B사감과 러브 레터》(〈조선문단〉 5호) 등과 같은 현실고발소설들을 발표하였다.

1926년 형 정건이 옥사한 후 기자 생활에 전력하였고 고향이 수록되어있는 단편집 《조선의 얼굴》을 〈글벗집〉에서 발행하였다. 이 때 단편 《사립정신병원장》을 발표하였다. 연이어 1927년 1월~3월에 장편 《해뜨는 지평선》을 연재하였고 1930년 장편 《웃는 표사》를 발표하였으나 1933.12.20.~1934.6.17.에 장편 《적도》를 연재하다 건강상의 문제로 중단하였다.

1936년에 동아일보 사회부장 재직 당시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의 일장기 말살 보도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1년간의 선고를 받고 복역하였고 1937년 출옥과 함께 동아일보 사회부장직을 사임하고 언론계를 떠났다. 그 후 양계를 시작했으나 잘 되지 못하였다.

1938년 단편 《무영탑》(동아일보)을 발표, 1941년 장편집 《무영탑》을 간행하였다. 그리고 1943년 이상화와 같은 날인 음력 3월 21일 지병이었던 장결핵과 폐결핵 악화로 사망하였다.

참고문헌: 윤병로, 한국대표명작 현진건:대표작품,작품해설작가평전 연구자료&위키백과

,지학사, 1985, P.262~265

2. 주요 작품

20131124 윤영식

1. 술 권하는 사회

현진건 작가의 초기 작품 중 대표작으로 1921년 11월에 쓰였다. 작품의 주인공은 ‘남편’으로 사회를 위해 무척이나 애를 쓰는 인물이다. 오직 “사회를 위해서”라는 가짐을 품고 일을 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무척이나 썼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못해 심한 갈등과 좌절을 느낀다. 그는 가게를 이어야만 하는 전통적 관습에 방해받아 그가 이루고자 했던 학업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남편은 사회에 대한 불만을 아내에게 토로하고 위로받으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남편이 왜 술을 마시는지에 대해 원인을 몰라 섭섭해 한다. 이 작품을 통해 1920년대 3.1 운동이 실패로 끝난 직후 식민지 지성인의 꿈과 이상의 좌절에 대한 현진건의 의식을 알 수 있게 해준다.

2. 운수 좋은 날

1924년도에 쓰인 작품으로 ‘김침지’라는 주인공의 반복적인 행운과 그 행운이 절정으로 만끽 될 때 ‘김침지’는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소설 제목과는 반어적인 구조를 갖춘 소설이다. ‘운수 좋은 날’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행운과 불행의 반전 교차, 밀어닥칠 운명에 대한 이전의 무지 상태와 이후의 깨달음의 충돌관계에 있다. 30전에서 1원 50전으로 행운이 늘어나고 돈이 생기게 됨으로써 병든 아내가 먹고 싶어 했던 설렁탕을 사줄 수 있는 기대와 가능성이 확보된다. 하지만 이런 행운의 날에 아내가 죽게 되어 전반에서 일어난 상황이 후반의 상황과는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데서 상황의 아이러니를 표현하고 있다. 재미있는 점은 ‘운수 좋은 날’은 불행에 대한 많은 조짐이나 혹은 예시적인 전조를 제기하며 복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복선을 찾아가며 소설을 읽는 것이 또 하나의 재미라고 할 수 있다.

3. 불

주인공 ‘순이’는 가난한 농가에서 자란 어린 소녀다. 그리고 ‘순이’는 민며느리로 들어간 시집에서의 힘겨운 노동과 남편의 과도한 성 행위, 시어머니의 학대를 받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 아직 미성숙한 소녀에게 노총각이 부당한 성 행위를 강요해서 독자들의 거부반응을 일으키게 한다. 봉건적인 제도 아래에서 시어머니의 극성과 남편에 대한 시달림에서 참다못한 ‘순이’는 부뚜막에 얹힌 성냥이 눈에 띄어 방화하고 증오의 불길과 동화되어 불의 새로운 의미가 있게 했다. ‘순이’의 방화는 인습의 쇠사슬에서 풀리는 것을 의미하면서 몇 가지 의미를 더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불의 첫 번째 의미는 금기파괴의 기쁨이다. 불에 탐닉해 희열 하여 미지의 세계로 비상하려는 ‘순이’의 ⁶⁾히프로메테우스 콤플렉스를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의미는 창조적 재생의 성격이다. 사회적 부정, 부패나 모순 일소, 새 세계의 탄생 희구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신동욱, 「현진건 문학연구」, 새문사, 1989, P.21, 33,116

6) 불에 대한 존경과 그 불을 흠쳐서 사용하는 인간의 영리한 불복종은 고질화된 인습속에서 고통을 받는 순이에게 적용되어 극한의 상황에 이르러 실현하게 함

3. 관련유적

2012131 이병호



·현진건 집터

: 서울시 부암동에 위치. 본래 집 또한 위치했으나 지난 2003년, 공용주차장을 짓기 위해 건물을 헐었다. 주민들의 반대로 공용주차장은 짓지 못한 채 공터로만 남아있다가 2012년 10월 4일에 법원경매에 부쳐졌다.

집터를 알리는 표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진건 (1900 - 1943)은 근대문학 초기 단편소설의 양식을 개척하고 사실주의 문학의 기틀을 마련한 소설가이다. 그의 작품은 자전적 소설과 민족적 현실 및 하층민에 대한 소설, 역사소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는 친일문학에 가담하지 않은 채 빈곤한 생활을 하다가 1943년 장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다.’



·현진건 문학비(두류공원)

: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3동 두류공원 인물 동산에 위치. 1996년 11월 9일, 현진건의 문학 정신을 기리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대구지회에서 건립하였다. 비석에는 현진건의 소설 <고향>의 일부가 새겨져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는 한숨을 쉬며 그 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이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준 술을 꿀꺽 들이키고 “참! 가슴이 터지더마 가슴이 터져”하자 마자 굵직한 눈물 두어 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본 듯싶었다.’

정보 출처 :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진흥재단

<http://www.oneclick.or.kr/contents/nativecult/area09.jsp?cid=41872>

4. 작품 세계

20131115 박정빈

1) 모순된 현실을 아이러니로 포착해 내다.

현진건의 소설들은 지식인의 눈으로 식민지 시대의 부정적인 사회적 현실, 즉 사회 하층민의 빈궁의 참상을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하면서도 그들과의 심리적 거리를 어찌지 못하고 다만 방관자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모순을 발견하고, 그러한 현실을 아이러니와 같은 소설적 장치를 통해 생생하게 그려낸다. 현진건이 구사한 아이러니는 인간의 이중성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아이러니와, 사회 모순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서의 아이러니로 나뉘는데, 전자로는 <할머니의 죽음>과 <B사감과 러브 레터>가 있고, 후자에 속하는 작품으로는 <운수 좋은 날>과 <술 권하는 사회>가 대표적이다.

당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해 고민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담은 <빈처>, <술 권하는 사회>와, 지식인과 민중의 만남을 통해 지식인의 눈으로 민중을 해석하고 식민지 치하 민족의 비참함을 파헤친 <고향>, 그리고 인습적 결혼에 의한 어린 소녀의 격심한 노동과 성적 고통 등을 다룬 <불>은 지식인으로서의 작가 현진건이 당대 민중들의 비참한 현실을 발견하고, 이런 현실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는가를 보여 주는 작품들이다.

2) 신변소설 : 작가의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설의 제재로 삼는 것

현진건의 초기작인 <빈처>, <술 권하는 사회>등은 신변소설적인 방식을 통해 작품의 구조가 허황되게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면서 구조적인 완결성을 높였다. 예를 들어 <빈처>에서는 초라한 아내가 생계를 위해서 장롱 속의 옷가지를 전당잡히면서 서로 위로하며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작가의 신변을 리얼하게 그렸다. 또한 자신에게 익숙한 세계의 문제를 드러내 비판이 구체적이고 현실에 부합하는 측면도 높다. <빈처>에서 현진건은 근대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속물화된 세계를 비판하는 한편, 예술가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3) 신변주의 소설 → 사실주의 소설로의 변화

현진건 작가는 자신의 이야기에서 점차 사회현실의 이야기로 확대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근대적인 의미의 ‘개인’과 ‘예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울분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여 그러한 문제를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인 식민지 현실의 문제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4) 대립적인 병렬구조의 장단점

현진건의 작품은 대부분 대립적인 병렬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상황이 분명히 파악되고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실이 단순화되는 위험이 있다. 대립적인 병렬구조를 통해 주인공의 도덕적 정당성과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할 수는 있으나, 현실 이해의 폭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5. 현진건의 문학사적 평가

20121143 박선우

현진건문학의 비평적 논의의 역사는 시기적으로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 단계는 1920년대부터 1945년까지의 시기로, 주로 현진건 소설의 기법상의 문제가 논의되었다. 현진건의 소설에 대해 김동인을 위시한 일부 평자들은 작품의 기교는 뛰어나지만, 내용이 없다는 식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김동인은 현진건의 일부 작품에 대한 단편적인 인상을 기술한 것으로, 현진건의 작품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단견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서 비평가들은 현진건을 사실주의에 시종했던 작가로 규정하고, 첫 번째 단계에 비해서 현진건의 작품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논의한 데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민족, 사회의식의 개념에서 사실주의를 이해하려는 점에서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지만, 현진건 문학을 사실주의 문학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개별 작품의 해석에 상당한 무리를 범하고 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197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서는 현진건 문학에 대한 논의의 범위가 확대, 심화하여 개별 작품에 대한 분석 고찰이 풍부해지며 종래의 단편소설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장편소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다. 또한 현진건의 생애와 작품 전반을 포괄하는 소위 종합적 작가론 형태의 연구 성과도 다수 나타난다.

이 시기에 거론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현진건의 작가의식 혹은 현실인식 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주장이다. 이 시기 현진건의 작가의식, 현실인식에 관한 논의는 먼저 그동안 현진건 문학에 대한 논의에서 간과되었던, 그의 후기 장편소설들을 대상으로 제기된다. 신동욱은 현진건이 무영탑을 통해서 투철한 사회의식과 역사의식을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작품적 형상화에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견해는 이후 현진건의 장편소설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현진건 문학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은 김중하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는 자신의 논문들을 통하여, 현진건의 문학을 사실주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일부 작품에서의 역사의식 결여를 지적하고, 일부 작품에서만 민족주의적 의식이 강렬하게 나타날 뿐 나머지 대부분의 작품을 민족적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진건의 민족주의는 민중과 틈틈히 연대된 것이 아닌, 뚜렷한 한계를 지닌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작품세계와 문학사적 평가 참고문헌

김동인 「논술대비 한국문학 운수 좋은 날 外」, 한국헤르만헤세, 2011, 162p~163p

현진건 「20세기 한국소설03 운수 좋은 날」, 창비, 2006, 267p~275p

한상무/ 「사랑의 작가 현진건 문학연구」, (주)복스힐, 2003, 100p

윤병로/ 「(한국대표명작) 현진건: 대표작품, 작품해설」, 작가평전, 연구자료, 지학사, 1985, 214p

신동욱/ 「현진건문학연구」, 새문사, 1989, 36p~37p

한상무/ 「사랑의 작가 현진건」, 문학연구, 2003, 9~16p

10조 - 월명사 [月明師]

1. 생애

20131134 임승연

월명사는 삼국시대 신라 경덕왕 때의 승려이다. 월명사는 능준 대사⁷⁾의 제자였고, 국선도⁸⁾에 속한 사람이었다. 월명사가 태어난 때와 죽은 때에 대하여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경덕왕(742~765) 재위⁹⁾ 19년인 760년에 경덕왕의 부름을 받아 향가를 지어 불렀다는

일화를 통해 월명사가 활동했던 시기를 어림잡아 알 수 있다.

경덕왕 19년에 해 둘이 나란히 나타나 없어지지 않았는데 일관(日官)이 산화공덕(散花功德)¹⁰⁾을 지으면 재앙을 물리칠 것이라 했다. 그래서 월명사로 하여금 도술가를 짓게 하자, 해의 괴변이 없어졌다. 이로 인해 왕은 그를 더욱 공경 하였다. 그리고 월명은 죽은 누이를 위하여 <제망매가(祭亡妹歌)>를 지어 불러 그 영혼을 위로하기도 하였는데, 누이의 재(齋)를 올릴 때 이 향가를 지어 불렀더니, 돌연 바람이 일며 지전¹¹⁾을 날려 서쪽을 향하여 사라졌다고 한다. <도술가(兜率歌)>와 <제망매가(祭亡妹歌)>는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그는 이 이외에도 <산화가(散花歌)>를 지었다. 이 노래는 <도술가(兜率歌)>와 함께 불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전하지 않는다. 산화란 불교 재식¹²⁾에서 ¹³⁾범패를 부르며 꽃을 뿌리는 한 의식이다. 월명사는 주로 사천왕사에서 지냈으며, 피리를 잘 불었다고 한다. 월명사가 달이 밝은 밤에 피리를 불자 달이 그 소리에 감탄하여 가던 길을 멈추었다는 일화가 전하는데 그 길을 월명리(月明里)라 한다. 이 일화는 월명사가 ‘월명사’란 이름으로 불리게 된 계기를 보여주기도 한다.

후에 월명사는 1983년에 민족문화추진 문학, 언어분야의 19명 중 한사람으로 지정되었다.

10조 전체 참고문헌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지식산업사, 1997.

황패강, 「향가 문학의 이론과 해석」, 일지사, 2001.

유해춘, 「월명사의 향가문학과 그 배경설화의 연구」, 경북어문학회, 1997.

나경수, 「월명사의 신분과 향가작품의 관계 - 도술가와 제망매가, 향가문학과 작품연구」, 집문당, 1995

김희보, 「한국의 옛시」, 가람기획, 2002, P39~40

최철, 「향가의 문학적 연구」, 새문사, 1983, P149~150

조병화, 이장희, 김윤환, 「한국의 고전시가 해석과 감상」, 글벗사, 1995, P62~64

이연,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2002, p523~533

김원중,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2002, p530~534

김창원, 「향가로 철학하기」, 보고사, 2007, p109~119

7) 높여 이르는 말

8) 신라 때 청소년들의 수양단체(=화랑)

9) 임금의 자리에 있음

10) 불교의 전통의식으로 부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꽃을 뿌려 그 발길을 영화롭게 한다는 축복의 의미이다.

11) 돈 모양으로 오린 종이. 죽은 사람이 저승 가는 길에 노자(路資)로 쓰라는 뜻으로 관 속에 넣는다.

12) 재를 올리는 의식

13) 석가여래의 공덕을 찬미하는 노래. 절에서 재를 올릴 때에 부른다.

2. 주요 작품 - 도솔가

20131117 박지은

今日此矣散花唱良

오늘 이에 산화 불러

巴寶白乎隱花良汝隱

뿌린 꽃이여 너는

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惡只

곧은 마음의 명 받아

彌勒座主陪立羅良

미륵좌주 외셔라

<도솔가>라는 작품은 월명사의 작품으로 760년경 신라 경덕왕 때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당시 하늘에 해가 두 개가 떠 있는 괴현상을 없애기 위해 경덕왕이 월명사를 불러 기도문을 만들어 달라는 데에서 탄생한 작품이다. 월명사가 향가를 지어 받치니 이 괴현상은 곧 사라졌다고 한다. 이 작품은 삼국유사 권5를 통해 전해 내려오고 있다.

<도솔가>는 전형적인 4구체 향가의 특징을 보인다. 괴현상을 사라지기를 염원하는 마음이 담긴 것으로 보아 주술적인 의미도 상당히 담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작품내용과 배경을 들여다보면 당시 하늘에 해가 두 개가 뜨고 사라졌다는 현상은 사실로 기록된 내용이 아니며 현상을 우회적으로 비틀어 다른 해석을 보여주었다고 본다. 해는 왕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개의 태양이 하늘에 떠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왕권의 위협을 받거나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당시 사회는 각종 천재지변과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있어 매우 혼란스러운 사회였고, 경덕왕은 이러한 혼란이 잦아들길 바라는 마음이 강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작품에 마지막 연을 보면 위와 같은 상황을 부처의 덕으로 기대어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작품이 만들어지던 시기는 미륵신앙이 널리 퍼져 있던 신라 시대다. 미륵신앙이란 불교의 이상사회를 만든다는 미륵불을 믿는 신앙이다. 여기서 미륵불은 석가모니에 이어서 미래에 중생들을 구제해주는 미래의 부처로 불린다. 훗날 새로운 세상과 새 삶을 살게 해준다는 희망을 불어넣어 준 신앙이 바로 미륵신앙으로 하층민들에 큰 지지를 받은 신앙이었다. 사회가 혼란하거나 어려움에 빠질수록 하층민들은 미륵을 기다렸다고 한다. 이러한 백성들의 심리를 이용해 당시 고위 관료층 몇몇은 이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신라 시대를 휘어잡던 불교적인 색채는 이 작품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 부처님 가시는 길 꽃을 뿌린다는 의미해서 축복을 의미하는 산화공덕의 행위라든지, 불교에서 공양을 치른다는 ‘산화’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한 점과 ‘미륵’이라는 단어사용을 볼 때 불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품을 읽으며 꽃을 뿌리는 주술적인 행위와 미륵좌주(중생을 이끄는 보살)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당시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이를 주술적이고 신앙적인 힘으로 의지하려 했다는 마음이 느껴졌다. 향가 자체 본문은 굉장히 아름다웠으나 그에 담긴 속뜻은 매우 깊어 놀랍기도 했다.

2-1. 작품 - 제망매가

20131131 이종희

生死路隱(생사로은)	삶과 죽음의 길은
此矣有阿米次肸伊遣(차의유아미차힐이견)	여기(이승)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吾隱去內如辭叱都(오은거내여사질도)	나(죽은 누이)는 간다는 말도
毛如云遣去內尼叱古(모여운견거내니질고)	못 다 이르고 갔는가?
於內秋察早隱風未(어추찰조은풍미)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차의피의부량락시엽어)	여기저기에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一等隱枝良出古(일등은지랑출고)	같은 나뭇가지(같은 부모)에 나고서도
去如隱處毛冬乎丁(거노은처모동호정)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阿也彌陀剎良逢乎(아야미타찰량봉호)	아아, 극락세계에서 만나 볼 나는
吾道修良待是古如(오도수량대시고어)	불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노라.

먼저 제망매가가 유명한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현존하는 향가 중 비유, 상징과 서정이 가장 뛰어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해 인간의 고통을 종교를 통해 극복하는 모습 또한 제망매가가 몇몇 향가 중 잘 알려진 이유이다.

세상에 태어났다가 일찍 죽은 누이를 간절히 생각하는 마음과 그로 인한 인생의 무상을 절실히 느끼며, 사후 극락에서 다시 만나보겠다는 소망을 적절한 비유를 통해 나타냈다. 예를 들어 부모를 한 가지로 나타내고 오누이를 그 가지에서 난 나뭇잎으로 비유하고, 누이의 이른 죽음을 가을철에 가지에서 나뭇잎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으로 비유했다. 이러한 비유와 사후 극락에서 만나겠다는 소망은 불교적 요소가 강하게 담겨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제망매가를 세 부분으로 나눠 보면 1~4구에서는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괴로움을 체념과 누이의 정으로 나타낸다. 5~8구에서는 오누이의 관계를 한 가지에 난 나뭇잎으로 하는 비유를 통해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의 운명과 괴로움으로 넓혔다. 마지막으로 9~10구에는 불교적인 느낌과 향가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낙구가 나타나 있다. 낙구인 ‘아으’는 절정에 다다른 슬픔을 나타낸다. 그리고 ‘미타찰’이라는 시구에서는 극락세계에 다다르고 싶다는 불교적인 모습을 나타내며 끝이 난다.

제망매가는 누이동생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겨 부른 애도의 정이 담긴 노래로 현존 향가 중에 제가 면모를 띤 노래이다. 또 이 향가에는 두 가지 중심 얘기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월명사가 누이를 위해 제를 올리고 노래를 지어 제사할 때 광풍이 일어나 지전을 서쪽으로 날려 보냈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누이가 서방정도에 갔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다른 하나의 내용인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빈다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즉 서방세계에 가서 편히 쉬라는 뜻인 것이다.

이렇듯 작품을 읽고 나면 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누이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반복해서 나타나는 불교적이 요소들로부터 지은이가 얼마나 신앙심이 깊은지를 알 수 있다.

3. <도술가>와 <제망매가>를 바탕으로 한 월명사의 문학적 의의

20091146 홍에스터

-<도술가>의 주술적 성격과 미륵 사상

두 개의 해 가운데 하나가 사라지는 진술은 이 노래의 비범함을 말해주는 동시에 월명사가 향가의 초능력적인 감응을 익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는 도술가를 국가의 위기를 물리치고 평안을 가지고 오는 주술적 노래라고 보는 것이다.

또한 '불범성패'라 하며 임금의 명을 거절한 것은 불교의 노래가 주술가의 구실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즉 월명이 주술가의 창작을 거절한 이유는 '이일병현'의 괴사는 주술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사상이기 때문이다. 시가 내용 어디에도 두 해를 제거하는 소원이나 주술을 찾아볼 수 없고 시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미륵좌주를 모시는 일이므로 <도술가>를 미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불가라고 본다.

-배경설화에 나타난 월명사의 불교적 요소와 화랑도적 요소

무불의 사상적 습합과 낭승의 신분 문제에 대해서는 배경설화에서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자신이 승려라 하였고 또 국선의 무리에 속한다 했으므로, 그의 신분을 승려이면서 화랑이볼 수 있다.

불교적 요소로는 산화의 예를 수행과 연승, 신승이라 일컫는 말에 승려라는 신분이 드러난다. 또한 미륵불을 향해 도술가를 불렀고 미륵불이 동자로 현신한다. 죽은 누이를 위해 불교적 의례를 열었다는 것 역시 그 증거이다.

월명사는 스스로 국선(화랑)의 무리에 속한다고 했으며 불승이 아니면서도 종교적 의례를 집전하고 향가를 지어서 죽은 누이의 제사를 지냈다. 또한 피리를 잘 불었던 것 등의 화랑도적의 요소를 보았을 때 그는 천지 및 귀신과 통하는 샤먼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도술가>와 <제망매가>의 불교적 성격과 문학사적 의의

<도술가>의 미륵좌주를 모시라 구절과 차와 주정염주가 미륵상 앞에 놓여있었다는 구절, <제망매가>의 불도를 이루어 극락세계에 간다는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인 작품의 구성이 불교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다.

일찍 죽은 누이동생을 위해 제를 올리면서 지어 불렀다는 <제망매가>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삶의 무상함을 넘어 광명의 세계에 이르고자 하는 불교적 정신이 잘 나타나 있는 노래이다. 또한 현존 향가 가운데 가장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며, 10구체의 완성된 형식미와 참신한 비유법과 함께 작품의 주제가 지니는 철학적 무게 덕분에 일찍부터 주목의 대상이 되어왔다.

5. 평가

20091107 나동환

-도술가의 “곧은 마음”

도술가는 일반적으로 ‘종교에의 귀의 혹은 신심이 주술적 행위를 통해 표상되어 나타난 주술가요’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이 노래에서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일 곳이 있다. 그것은 “곧은 마음”이다. 일연¹⁴⁾은 한역가¹⁵⁾에서 이를 “직심(直心)”으로 옮겼다. 우리가 “도술가”의 신비한 마력을 종교적으로 설명하든 주술적으로 설명하든, 그 결정적인 원천은 이 ‘곧은 마음’이다. 그렇다면 그 정확한 의미의 실체는 무엇일까? 지극히 정성 어린 마음의 다른 표현에 불과할까? 그렇지 않다. ‘곧은 마음’은 불교에서 특수하게 사용하는 개념이다. 불교에서 ‘곧은 마음’이란 다른 아닌 실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인간이 진정한 삶을 얻기 위해 이 세계로부터 얼마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얼마나 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느냐 하는 힘을 뜻한다. 그런데 그 힘은 바로 실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요컨대 “비어있음”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어있음”은 곧 자아의 멸각¹⁶⁾이기도 한데 그것은 자아로 인하여 생겨나는 분별과 차별을 넘어서는 것이다. 자아의 멸각이란 인간 중지, 즉 인간의 눈이 아닌 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곧은 마음”은 사랑과 자비의 마음(깊은 마음, 대비심¹⁷⁾)과 동시적이라고 본 것이다.

-제망매가의 힘

향가는 태생적으로 신화와 주술의 세계관 위에 놓여 있다. 인간이 사는 이 지상 위의 하늘에 서방정토나 미타찰이 있다든지, 하늘로부터 파송된 천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지상에 내려온다든지 하는 관념을 비롯하여, 일체개공¹⁸⁾을 살피는 반야가 혹은 그 반야를 담지하고 있는 인간의 말이 외부적 재앙을 물리치고 세속국가를 지키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관념 등은 우리가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향가는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이 향가를 이 탈(脫)신화화를 수행하면서 역사 속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제망매가”에서 신은 여전히 외부에 있다. 그렇지만 이 두 작품은 구원을 전적으로 외부에서 찾지는 않는다. “미타찰”과 “서방정토”는 오히려 인간 내부에 있다. 그것은 “자기 멸각”이나 “비어있음”속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이들 향가 작품들이 역사에 속박되지 않는 보편적 힘을 내부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향가 작품은 『삼국유사』가 전하는 역사 문맥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인간의 실존 문제를 다루는 시편으로 읽혀질 수 있다. “제망매가”에 딸린 신화적, 주술적인 사연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인간학적 문제와 관련한 시편으로 읽힐 수 있다. 그런 이유에서 이 노래들에 딸린 신화적, 주술적 사건들은 오히려 사족으로 보이기도 한다. 아마 어느 정도는 이 노래가 “감통”이라는 전통적인 서사 양식의 질서에 따라 재구성된 탓이기도 할 것 이다.

14) 삼국유사』 지은 고려후기 승려(1206~1289)

15) 우리말로 구전된걸 한자로 번역한 것.

16) 조금도 남기지 않고 없애 버림.

17)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려는 불(佛)·보살(菩薩)의 마음.

18) 공 사상중 하나로 만유의 모든 현상은 그 성품으로 보면 다 공하다고 주장하는 것

11조 - 성덕대왕신종

1. 성덕대왕신종 역사와 유래

20083610 이한울



성덕대왕신종은 최초 신라 경덕왕이 아버지인 성덕왕의 공덕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들기 시작되었다. 하지만 종의 완성을 경덕왕은 보지 못하였고 그 뒤를 이어 해공왕이 771에 종을 완성하여 성덕대왕신종이라 이름 붙였다. 이 종은 처음에 봉덕사에 달았다고 해서 봉덕사종이라고도 하며, 아기를 시주하여 넣었다는 전설로 아기의 울음소리를 본떠서 에밀레종이라고도 한다.

성덕대왕신종이 에밀레종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것은 그 종소리의 여운의 소리가 '에밀레' 같고, 그 뜻은 "에밀레라" 즉 "에미 탕으로"와 같기 때문이다. 내용인즉슨 경덕왕이 대중을 만들기 위한 성금을 모으기 위하여 전국에 시주 종을 내보냈을 때 어느 민가의 아낙네가 어린애를 안고 희롱조로 "우리 집엔 시주할 것이라고는 이 애밖에 없는 데요"라며 스님을 놀렸다는 것이다. 종 만드는 일에 계속 실패를 거듭하자 일관이 점을 쳐서 이것은 부정을 탄 것이니 부정을 씻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부정의 원인 알아본 결과 그 아낙네 탕으로 단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애가 희생되어 "에밀레"로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재미 이상으로는 받아들이지는 말아야 한다. 신라라는 나라는 법흥왕을 거쳐 불교를 국교로 채택하여 민심을 모으고 왕의 권위를 높이는 데 이용하였다.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뭉쳐있는 신라에서 나라의 평안과 선조의 공덕을 알린다는 목적하에 그러한 반인륜 반불교적인 살생을 했을 리 없다는 점이 그 첫 번째 이유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종의 성분분석결과 뼈의 성분 중 하나인 인(Phosphorus)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며 70%의 수분으로 이루어진 사람은 종의 재료로 적당하지 않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에밀레종에 관한 전설이 20세기 초반에 들어와서야 문헌적인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으로 후대에 의해 창작이 되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이야기에 관한 유래는 아직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성덕대왕신종은 국보 제29호이며 우리나라 최대의 종이고 신라 시대 예술을 대표하는 문화제로 손색이 없다.

참고 문헌

국립경주박물관, 성덕대왕신종 종합조사보고서, 국립경주박물관, 1997, p272-285

문화재청 성덕대왕신종

동아일보, 1면 1996년 9월 14일

네이버 지식백과

사진 출처 <http://www.doopedia.co.kr>

매거진- 문화 읽기

국립경주박물관 홈페이지

2. 성덕대왕신종의 형태의 특징

20081133 임명철

성덕대왕신종의 윗부분에는 용의 모습을 한 고리가 있고 이것을 용뉴라고 한다. 용뉴와 용뉴가 붙어 있는 종의 윗부분인 천판을 보면 성덕대왕신종을 만드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얼마나 정성을 다해 신종을 제작하였는지 알 수 있다. 성덕대왕신종은 주악천인상¹⁹⁾과 종의 입모습 등이 다른 종과는 다른 몇 가지 독특한 양식을 하고 있다.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한 일반적인 모습의 주악천인상과 달리 손잡이 달린 향로를 들고 무릎을 꿇은 모습의 공양자상이 앞뒤 면에 양각되었는데, 이는 종에 새겨진 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덕대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제작된 것인 만큼 성덕대왕의 왕생극락을 간절히 염원하는 모습을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용뉴와 천판)



(공양자상)



(당좌)

종의 몸통 앞뒤에는 두 개의 당좌가 있다. 당좌는 종에 새겨지는 무늬인데 성덕대왕신종은 그 주위를 원형 테두리 없이 모란꽃과 연꽃을 결합시킨 화려한 꽃무늬로 장식하였다. 이 당좌와 공양자상의 몸체 사이에 성덕대왕을 기리는 원문과 함께 종 제작에 참여했던 인물의 이름 등 양각으로 글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당시 사회 상황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역사나 문화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19) ·생황·금·장구·북·피리 등의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으로 표현된 천인상(天人像)이다.

3. 성덕대왕신종의 소리의 특징

20131135 정지은

성덕대왕신종의 소리는 다른 종소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로 맥놀이 현상이다. 맥놀이 현상이란 울림에서 원래 소리와 되돌아오는 소리가 마주치게 되면 서로 더해지거나 덜해져 새로운 소리가 생기는 현상이다. 종의 두께의 불균일, 당좌(종의무늬) 돌출, 등이 성덕대왕신종의 맥놀이현상 원인이다. 둘째는 음관이다. 신종의 음관은 그 지름이 종 안쪽 입구가 82mm, 바깥쪽 출구가 142mm, 길이가 770mm인 깔때기꼴이며 외형은 마디가 있는 대나무 모습이고 용결이에 얹혀 두껍고 뒤편에 꽃히듯이 세워져 있다. 일종의 나팔형 구조이다. 타종 시에 종소리의 고유 성분인 저 진동수 성분은 내부로 되돌려 보내어 종소리의 고유 성분을 보호하고 높은 진동수 성분의 음파는 재빨리 방출해 잡소리를 줄이는 기능을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셋째, 종 아래에 있는 구덩이 즉 울림통의 효과를 들 수 있다. 구덩이 역할은 일종의 진동에 울리는 동체 역할을 해서 타종소리가 은은하고 오래 지속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성덕대왕신종에서는 64Hz가 나온다. 이는 땅속으로 잘 전달되는 성분이다. 울림통의 역할은 신종의 소리를 땅속으로 전달해서 소리를 더욱 장중하게 한다. 또한 불교적인 관념에서 보면 신종의 소리가 땅속으로 전파되어 지옥중생에게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상징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3-1 성덕대왕신종의 타종

성덕대왕신종은 성덕왕의 공덕을 추앙하고 높이기 위함이었다. 후세에 들어 성덕대왕신종은 수명 단축 문제로 지난 92년 12월 31일 제야에 서른세 번 타종했던 것을 끝으로 9년간 타종을 중지했었다. 9년 만인 2001년도에 들어 10월 3일 개천절에 한하여 타종하기로 결정하여 타종하였다. 오랫동안 좋은 상태로 유지되어온 성덕대왕신종이지만 타종을 계속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소리를 통한 미세균열과 문제점을 찾기 위하여 타종한 것으로 측정이 끝난 2003년을 마지막으로 타종을 중단하였다.

4. 성덕대왕신종의 보존 상태와 가치

20131138 최양선

성덕대왕신종은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종 중 가장 큰 종이다. 신종은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29호로 지정되었다. 통일신라 771년에 제작이 완성되었으나 종이 만들어진 그 시간에 비해 보존 상태는 아주 좋으며 앞으로도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타종은 금지되어있다.

예술적 가치로서 종에 새겨진 문양이나 문장들이 모두 섬세하고 아름다워 통일신라의 예술적 전성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성덕대왕신종에 보이는 비천상(공양자상)을 예로 들겠다. 비천상은 신라, 고려 시대에 걸쳐 많은 불교 사원과 범종에 자주 등장했다. 하늘을 떠다니는 듯한 선인의 모습이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다. 이는 통일신라시대의 뛰어난 예술을 엿 볼 수 있다. 또 역사적으로 종의 유래와 함께 종을 제작할 때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종명이 있어서 당시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료가 되기도 한다.

과학적 가치 또한 우수하다. 우리나라 최대의 종이며 현대기술로도 성덕대왕신종만큼 크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을 만들기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신종의 맑고 긴 소리의 비결에는 많은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종에서 나오는 두 쌍의 음파가 섞여 미묘한 진동수 차이를 만들어 맥놀이 현상을 일으키는 것. 둘째로 종 아래에 반원 모양으로 약간 파놓은 명동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종을 쳤을 때 그 소리가 울리도록 공명동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의 제작 방법인 납형법이 다른 제작 방법보다 형태나 소리 면에서 뛰어나다는 점이다. 납형법²⁰⁾은 청동으로 종을 만드는 기술 중 가장 어려운 기술이라 주로 작은 종을 제작할 때 쓰인다. 그런데 가장 큰 종인 성덕대왕신종을 제작하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였고 성공적으로 종을 만든 신라의 과학 기술의 비밀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원래 국보로도 지정된 만큼 종의 가치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세계음향학자들마저 놀라워하는 신종의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지금은 타종이 금지되어있는데 이는 신종의 보존을 위함이다. 과거의 문화재들, 성덕대왕신종 같은 종을 더불어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작품들을 그 목적에 맞게 계속 사용해야 수명도 더 오래갈 거라는 의견들도 틀리지는 않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언제 어떻게 문화재가 갑자기 손상될지 모르는 것이고 문화재의 사용목적과 방법만 알고 기록해놓는다면 굳이 낡은 문화재를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우리의 문화도 중요 하지만 우리의 뿌리, 고유의 문화를 알고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삼국시대, 고려 시대에 꽃피웠던 우리나라의 불교문화 중 대표적인 종인 성덕대왕신종의 보존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 (蠟)을 모형으로 하는 옛부터의 조형법의 일종

5. 국립경주박물관

20131119 배은주



국립경주박물관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시작되었다. 1913년 ‘경주고적보존회’가 결성되었고, 그들은 2년 후, 옛 객사 건물에 신라 유물을 수집하고 전시하였다. 그로부터 13년 후인 1929년, ‘총독부박물관 경주분관’이 되었으며, 1945년 8·15 광복과 함께 ‘국립박물관 경주분관’으로 출범하였다. 1975년 7월 2일에는 인왕동 신박물관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며 같은 해, 8월 20일에는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승격됐다. 1982년에는 제 2별관(과거 명칭은 ‘안압지관’이었으나 현재 명칭은 ‘월지관’)을 신축하였으며 1994년 ‘경주박물관대학’을 설립하였다. 2002년에 미술관을, 2005년에 어린이박물관을 새로이 개관하였다.

현재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76번지에 있는 경주국립박물관은 기획운영과와 학예연구실로 구성된 조직 아래, 박물관은 고고관, 미술관, 월지관, 옥외전시관, 특별전시관, 어린이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고관은 제 1·2·3전시실, 국은기념실로 구성되어있으며, 미술관은 불교미술 1·II실, 금석문실, 황룡사실로 구성되어있다. 월지관에는 3만여 점의 안압지에서 발견된 통일신라시대의 문화재 중에서도 엄선한 3백여 점의 문화재를 전시하고 있으며, 옥외전시관에는 석조유물 11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운영될 것 같은 어린이박물관은 관심만 있다면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어린이박물관은 크게 놀이로 체험하는 것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체험하는 것,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체험하는 활동들을 해볼 수 있게 되어있어 지루하고 어려운 박물관 전시가 아니라 즐겁고 재밌는 체험들을 바탕으로 역사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어린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체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도 적합하지만 지루한 전시를 싫어하는 청소년들에게도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그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라의 미소’로 잘 알려진 ‘얼굴무늬 수막새’가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중이며, ‘성덕대왕신종’은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종각에 따로 전시되어 있으며 실제 타종 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녹음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종에 새겨진 화려한 장식은 감상의 재미를 더한다. 이밖에도 박물관 행사 장소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전통 한옥 건물로 지어진 수목당과 연못 고창지도 월지관 옆에 자리하고 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특별한 주제를 선정해 그에 걸맞은 전시전을 개최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광복과 함께 출범해 더 뜻 깊은 국립경주박물관에는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보와 보물은 총 37점이지만 앞으로도 신라를 비롯한 유물들의 발굴과 함께 더 풍요로워질 것으로 생각한다.

자료출처: 국립경주박물관 gyeongju.museum.go.kr

12조 - 연오랑 세오녀

20131140 허선희

1. 연오랑 세오녀 신화

어느 민족이나 해와 달에 관한 이야기는 풍부하다. 그러나 우리는 구비전승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지만, 문헌에는 거의 없다. 문헌에 전해지는 유일한 일월신화는 삼국유사에 쓰인 ‘연오랑 세오녀’이다. 이 설화가 일월신화로 일컬어지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설화를 살펴보면, ²¹⁾신라 아달라왕 4년 동해 변에 연오랑과 세오녀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바위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 왕과 왕비가 되자,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 이에 세오녀가 짝 비단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신라에 다시 빛이 돌아와, 비단을 창고에 모셔 국보로 삼고 그 창고를 귀비고라 하였으며, 하늘에 제사 지내던 곳을 영일현(迎日縣)²²⁾ 또는 도기야(都祈野)²³⁾라 하였다.

이 설화 속에서 연오와 세오의 이동으로 일월이 빛을 잃었다가 세오의 비단 제사로 다시 광명을 회복하였다는 일월지(日月池)의 전설과 자취는 지금도 영일만에 남아 있다. 영일현의 영일(迎日), 즉 ‘해맞이’의 지명도 태양신화와 직접 관련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동남 해안과 일본의 이즈모(出雲) 지방은 역사적으로도 문화의 전승로였음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문화를 따라 이동한 태양신화의 한 모습을 이 설화는 잘 설명하고 있다. 그렇기에 연오랑 세오녀는 일월의 정기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오랑과 세오녀의 ‘오’ 자는 까마귀 ‘오’ 자로 보통 죽음, 저승사자, 간신, 등 불길한 의미로 상징되고 있지만, 중국이나 고구려에서 까마귀를 태양 속에 사는 새로 알고 있듯이, 설화 속에서도 까마귀는 ‘태양’을 상징하고 있다.²⁴⁾

또한, 이 설화 속에는 일본에 대한 신라문화의 전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오랑과 세오녀가 바위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는 부분에서 신라의 문화가 흘러들어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일본에 대한 우리문화의 우월의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삼국유사에 실린 ‘연오랑 세오녀’설화는 많은 의의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일하게 문헌으로 전해져오는 일월신화로서 해와 달과 관련이 있고, 또한 우리 민족이 일본을 개척하여 통치자가 되고 문화를 전파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설화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신라사학회,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 경인문화사, 2006

김화경, 「연오랑 세오녀 설화의 연구 -환동해 문화권의 설정을 위한 고찰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21) ,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 경인문화사, 2006, p32-33

22) 영일현 : 지금의 포항시 지역. 해를 맞는다는 의미

23) 도기야 : 지금의 포항시 동해면 도구동과 일월동 일대.

24) 김화경, 연오랑 세오녀 설화의 연구 -환동해 문화권의 설정을 위한 고찰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2. 延烏郎 細烏女 <연오랑 세오녀> 원문

20131120 배은희

第八阿達羅王即位四年丁酉。東海濱有延烏郎·細烏女·夫婦而居。

제8대 아달라왕²⁵⁾이 즉위한 지 4년 되는 정유(157)에 동해 바닷가에 연오랑과 세오녀 부부가 살고 있었다.

一日延烏歸海採藻。忽有一巖。(一云一魚) 負歸日本。

하루는 연오랑이 바다에 나가 해조류를 따는데 홀연히 ²⁶⁾바위 하나(혹은 한 마리의 고기)가 나타나더니 연오를 싣고 일본으로 가버렸다.

國人見之曰。『此非常人也。』乃立爲王。(按日本帝記 前後無新羅人爲王者。此乃邊邑小王 而非眞王也。)

그 나라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고 말하길 “이 분은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다” 하고는 왕으로 세웠다. (일본제기를 살펴보면 이 사건의 전이나 후에 신라 사람으로 왕이 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변방 고을의 왕이고 진정한 왕은 아닐 것이다.)

細烏怪夫不來。歸尋之。見夫脫鞋。

세오가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괴이하게 여겨 가서 찾아보니 남편이 벗어 놓은 신발이 보였다.

亦上其巖。巖亦負歸如前。其國人驚訝。

그녀도 또 그 바위에 올라갔더니 바위가 역시 전과 같이 세오를 싣고 가버렸다.

奏獻於王。夫婦相會。立爲貴妃。

그 나라 사람들이 놀랍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왕에게 말씀드리며 세오를 드리니 부부가 서로 만나 세오는 귀비가 되었다.

是時 新羅日月無光。日者奏云。『日月之精。降在我國。今去日本。故致斯怪。』

이때 신라에서는 해와 달의 빛이 없어지자 ²⁷⁾일관(日官)이 말씀드리기를 “해와 달의 정기가 우리나라에 내려와 있었으나 지금은 일본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괴이한 일이 생긴 것이옵니다”라 했다.

→²⁸⁾日月之精(일월지정)의 精을 ‘정령’이라 해석.

해와 달은 빛이다. 연오와 세오를 ‘해와 달’보다는 ‘해와 달의 정령’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령을 자연스럽게 의인화 시킨 점이 연오랑 세오녀 이야기를 아름답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뽑힌다.

王遣使來求二人。延烏曰。『我到此國。天使然也。今何歸乎。雖然朕之妃有所織細綃。以此祭天可矣。』仍賜其綃。

왕이 사자를 보내어 두 사람을 오라고 하였더니 연오는 “내가 이 나라에 온 것은 하늘이 그렇게 시킨 것이니 이제 어찌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나 짐의 왕비가 짠 고운 비단이 있으니 이것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 될 것이다”라 하면서 그 비단을 주었다.

使人來奏。依其言而祭之。然後日月如舊。藏其綃於御庫爲國寶。

사자가 돌아와 보고 드리고 그 말대로 제사를 지냈더니 과연 그 후에 해와 달이 전과 같이 되었다. 그 비단을 궁중의 창고에 간직하여 나라의 보물로 삼았다.

名其庫爲貴妃庫。祭天所名迎日縣。又都祈野。

창고의 이름을 귀비고라 하고 하늘에 제사 지낸 곳을 영일현 또는 도기야라 했다.

참고문헌: 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 上」, 민족사, 2005

25) : 신라 제8대 왕. 재위기간 154~184. 『삼국사기』에 의하면 왜국의 여왕 비미호가 173년에 사신을 보낸 것이 이 왕 때임.

26) 바위(巖) : 배[舟(주)]와 돌배[石舟(석주)]와 수중암(水中巖)과 연관된 것으로 신격의 내림장소를 의미. <김문태, 『삼국유사 시가와 서사문학』>

27) 일관(日官): 하늘의 조짐을 살피고 점을 치는 일을 담당한 사람.

28)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삼국유사1-고운기 글·양진 사진. 98페이지 참조.

3. 연오랑 세오녀 설화에 대한 역사적 접근과 고찰

20122558 박 혁

설화 속에 등장하는 연오랑과 세오녀는 실제 역사 속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신라 제8대 아달라왕때 영일지역 어느 마을에 연오랑과 세오녀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고, 남편인 연오랑은 수시로 바닷가에서 미역을 따 생활에 보탬다고 전한다. 이 부분만을 놓고 생각해 보았을 때, 연오랑 부부는 해초류나 조개류를 채취해서 근근이 생활하는 어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을 볼 때, 이들이 평범한 어민이라고 보기에는 심상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 제사 문제를 놓고 경주의 지배세력과 정치적인 교섭을 벌이는 등의 모습이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영일지역에 먼저 거주하면서 해조류, 조개류를 채취하던 사람들의 재배세력을 연오랑 부부라고 상징적으로 취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이 설화를 살펴보았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은 무엇일까? 그것은 신라의 지배세력과 영일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세력(이들 세력을 편의상 연오랑 집단이라고 하겠다.)간의 ‘갈등’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제사’와 관련된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국가가 성립된 다음, 신라 사람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제사는 왕실의 조상제사, 즉, ‘시조묘 제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제사는 당시 신라사회를 종교적, 사상적으로 통합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반해 영일지역에 살던 연오랑 집단은 조상신보다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다고 한다. 국가와 왕실의 조상제사를 중시했던 신라와 해와 달에 대한 제사를 중요하게 여겼던 연오랑 집단의 갈등은 피할 수 없었을 것이며, 결국 이에 밀린 연오랑 집단은 일본으로 이주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이 설화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연오랑과 세오녀가 하늘의 뜻으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설화에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 신라에 밀려서 연오랑과 세오녀가 영일지역을 떠나게 되었는데, 왜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고 표현했냐는 점이다. 그것은 국가재정과 관련되어 설명할 수 있다. 고대 사회에서 국가재정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것은 바로 인구의 유지였다. 아달라왕으로서는 연오랑 세력의 이주가 달가울 리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연오랑 세력이 이탈함으로써 국가적으로 큰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지배하는 명분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오랑 부부가 떠나자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지금까지 연오랑 세오녀 설화를 역사적인 사실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이 설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연오랑 부부는 영일지역을 지배하던 세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는 것, 둘째, 이들은 확장되어가는 신라라는 새로운 지배 세력과 ‘제사’라는 문제로 갈등했다는 것, 셋째, 결국 그 갈등에 밀려 연오랑 집단은 일본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신라는 국가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 등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신라사학회,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 경인문화사, 2006

이상준, 「연오랑·세오녀 설화의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4. 설화의 관련 명소와 지명

20131136 정희선



* 일월사당

연오랑과 세오녀의 설화를 희망적인 정서로 승화하기 위해 복원하여 매년 10월에 해와 달에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일본에 문화를 전해주었다는 문화적인 우수성에 대한 포항 지역 사람들의 자부심이 잘 느껴지는 곳이며 주변 자연들과 어우러져 한층 더 멋스러움을 자아내는 곳이다.

* 참고문헌 - 한국여행작가협회, 「경상북도 이야기 여행」, 상상, 2009



* 영일 일월지

세오녀가 짚 비단을 제물로 하늘에 제사를 올려 해와 달이 빛을 회복했다. 이때부터 일월지 혹은 일월향이 라고 부른다. 경북 기념물 제120호로 해병 제 1사단 본부에 위치하므로 방문 전에는 미리 견학 의사를 밝혀야 한다. 잔잔한 호수 둘레를 따라 걸으며 잃어버린 빛을 되찾길 바라는 옛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떠올려보자.

* 참고문헌 - 한국여행작가협회, 「경상북도 이야기 여행」, 상상, 2009

* 출처 - 문화재청 홈페이지



* 호미곶 해맞이 광장

호랑이 모양의 한반도 모양에서 꼬리부분에 위치한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매년 1월 1일이면 일출을 보러오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연오랑 세오녀의 설화의 배 경인 영일만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이 세워져 있으며 이곳에서 연오랑을 태운 바위가 솟았다고 전해진다.

* 참고문헌 - 한국여행작가협회, 「경상북도 이야기 여행」, 상상, 2009



* 포항 도구 해수욕장

오래전부터 여러 전설을 가지고 있는 곳 중 하나로 연오랑 세오녀의 전설이 대표적이라고 한다. 바로 이 바다에서 그들이 바위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갔기 때문이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연오랑과 세오녀는 그저 단순히 바위가 그들을 일본으로 데려다 주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게 됐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참고문헌 - 한국여행작가협회, 「경상북도 이야기 여행」, 상상, 2009

* 출처 - 지역정보포털>향토문화>향토자원

<http://www.oneclick.or.kr/contents/nativecult/area01.jsp?cid=77827>

한국문학탐방 참가자 연락처

학과장	김명준	
	오춘택	
	신서인	
	박슬기	
	유명희	
조교	한소영	
석사	윤숙	
학회장	이재혁	
부학회장	이다영	
답사부장	길창인	

1조

20121138	정회일	
20131101	김가은	
20131102	김경훈	
20131121	양인영	
20131137	지윤정	
20121116	노용우	
20121108	김민주	

2조

20091112	박빛	
20121115	남윤주	
20121129	윤희정	
20131105	김보미	
20131103	김동민	
20131123	육소연	
20131139	최진실	

3조

20091140	최순택	
20131106	김소정	
20131104	김민섭	
20131125	윤희진	
20131141	허송이	
20121103	권순영	

4조

20091108	노한나	
20121122	변지선	
20131108	김시은	
20131107	김수동	
20131127	이나래	
20131142	호예원	

5조

20071135	조영재	
20121142	김기훈	
20131109	김연수	
20131111	김재우	
20131128	작은민정	
20131143	홍빈나	

6조

20091102	김민우	
20131110	김은지	
20131114	박상우	
20131129	큰민정	
20131144	홍종현	
20121128	윤지은	

7조

20121104	길혜민	
20121110	김유미	
20131116	박정현	
20131112	김한별	
20131130	이수진	
20071119	박영훈	

8조

20081142	최성은	
20121118	박은지	
20121111	김윤경	
20131118	박현	
20131113	문소윤	
20131132	이지연	

9조

20121143	박선우	
20121131	이병호	
20131124	윤영식	
20131115	박정빈	
20131133	이지원	
20121141	홍정인	

10조

20091107	나동환	
20091146	홍에스더	
20131131	이종희	
20131117	박지은	
20131134	임승연	
20071139	최선평	

11조

20081133	임명철	
20083610	이한울	
20131138	최양선	
20131119	배은주	
20131135	정지은	
20091116	백민혜	

12조

20111118	맹승범	
20122558	박혁	
20131140	허선희	
20131120	배은희	
20131136	정희선	
20091128	이진희	